

증산계 『현무경』 연구

구 중 회

공주대학교 · 명예교수

- | | |
|----------------------|------------------------|
| I. 서론 | IV. 기존의 두 가지 접근 방법과 실패 |
| II. 『현무경』 태동의 시대적 배경 | V. 『현무경』 말씀의 새로운 풀이 |
| III. 원전과 이본에 대한 검토 | VI. 결론 |

I. 서론

『현무경』은 증산[강일순(姜一淳, 1871~1909)]계의 25쪽짜리 단행본의 경전이다. 1909년에 기술된 이 경전은 100여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원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현무경』의 이본들을 검토하여 원전을 확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접근 방법/방식으로 새로운 풀이[주해/해석]를 시도하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세상에 유통되는 『현무경』의 원전은 33쪽짜리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토 결과 25쪽이 처음의 원전[현재로는 그 원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이다. 증산계 각 종파/종교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현무경』을 원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병세문’을 붙여서 그 원전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현무경』은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 표기/표출 방식이 독특하여 그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 비밀에 싸여 있다. 지금까지 읽어내는 방식/방법은 1) 주역적 접근, 2) 간지적 접근 등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역적 접근의 경우 불교적 분류 방식으로 보충되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원전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 착안하여 1) ‘현무경부(玄武經符)’[다음부터는 줄여서 ‘경부(經符)’라 쓰기로 한다]로 세속의 부적과 같으나 다른 성격을 지닌 점, 2) ‘반서체(反書體)’[정서체(正書體)의 반대 모습, 거울에 비친 글씨체]를 비롯하여 글씨의 크기나 쓰이는 위치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 3) 경부에 점들이 찍혀 있고 글씨 왼쪽이나 위·아래로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 4) ‘영가(詠歌)’와 공상각치우의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보고 이들을 항목화 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로 『현무경』의 종교적 코드/암호를 모두 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첫걸음’을 떼어놓았다고 생각할 뿐이다.

II. 『현무경』 태동의 시대적 배경

- 19세기 후반기 조선사회 해체와 증산·일부의 대처-

강증산이 살았던 시기는 1871년부터 1909년이다. 이 시기의 조선 시대는 국외적으로는 국체가 외국 세력들에게 흔들리면서 극도로 혼란스런 때였다. 국내적으로 신분계급 사회의 재편성 시대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적 지배의 우열과 경제적 생산관계에 유래되는 세습적인 집단으로 사회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常民)/상인(常人), 천민 등 4 계급이었다. 오늘날 ‘일반 대중’은 상인과 천민 계급이 해당될 것이다. 확대 해석한다면, 일부 중인 계급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 계급이 적게는 3% 많게는 5%라 계산한다면, 일반 대중은 95~97%라는 절대 다수의 비율이 될 것이다.

1895년[고종 32] 갑오경장 이후 신분계급의 타파가 제도화 되었고, 그 후 신문화의 수입과 민족적 자각에 의하여 점차 폐지되었다.¹⁾

이러한 신분계급의 철폐는 특히 상민/상인 층이나 천민 층의 잠복되었던 에너지원이 폭발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분출하던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반 대중의 욕구에 대한 분출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금 더 이들 계층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상민/상인 층은 보통 농·공·상에 종사하는 생산계급으로 납세, 공부(貢賦), 군역(軍役) 등의 전면적인 담당층이었다. 상민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했는데, 자신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국가 또는 양반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들 경제적 직위는 농노와 같았다.

천민은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가장 낮은 신분층으로 노비·백정·창우[배우]·승려·무격(巫覡) 등이 여기에 속하였다.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층이 노비였는데, ‘7반공천(七般公賤)’과 ‘8반사천(八般私賤)’이었다. 공천은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사노비(寺奴婢), 내노비(內奴婢), 관노비(官奴婢), 원노비(院奴婢), 교노비(校奴婢) 등이 있었고, 사천은 매매나 양도로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로 사노비, 원노비, 교노비 등이 있었다.

그런 신분제도의 철폐는 갑오경장 시기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16세기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1) 이홍직, 『국사대사전』 (서울: 지문각, 1956), p.865.

노비들은 16세기 이후 군공종량(軍功從良)이나 공사천무과(公私賤武科) 및 경제력에 바탕을 둔 납속 등의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양인으로 신분상승하였다. 국가적으로는 대대적인 신분제 변동추세에 따라 1801년(순조 1) 6만 6,067구의 공노비의 혁파가 있었다. 이후 1894년(고종 20) 갑오개혁으로 공사노비제가 완전히 혁파됨에 따라 차별적인 신분제의 폐지와 더불어 노비제가 사라졌다.²⁾

이러한 신분제도 철폐의 징후는 ‘노비면천첩(奴婢免賤帖)’[노비신분을 벗어내는 증서], ‘노비속량(奴婢贖良)’[노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양인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 ‘공명첩(空名帖)’[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사령장]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갑오경장의 신분제도의 철폐는 어쩔 수 없는, 통치술의 일부로 일어난 ‘꼼수’라는 것이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약속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다.

결국 나라 백성들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95%가 억압에서 해방되니 그들의 에너지 분출을 짐작하고 남는다. 그 증거가 1919년 기미 독립에서 확인될 수 있다.

강증산은 이러한 시대에서 살면서,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의 ‘대변자’ 노릇을 했던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당대의 민중들이 정서를 잠재우고자 종교를 창설했다고 생각된다.³⁾

천지신명이 상제가 아니시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천 서역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 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大巡)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다가 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大道)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1864

2) 온라인 브리태니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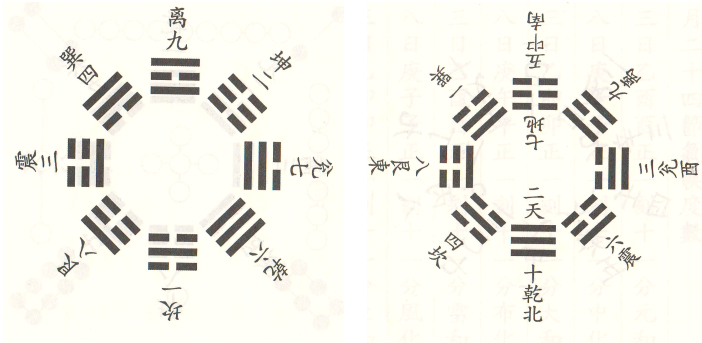
3) 논문 심의 과정에서 “종교 창설은 신도들을 모으는 포교활동 즉 교단의 창설로 이해를 한다면 강증산은 이러한 활동을 하였는가의 질문에서 대순진리회에서는 천지공사를 위하여 따르는 종도가 필요하였지만 신도의 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증산은 종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교단활동의 시작을 도주 조정산부터 보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최계우 대구에서 처형]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1871]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선포의 말씀이 있었다. 상제가 세상에 탄강하시기에 앞서 1) 천하의 대순이 있었고 2) 동토에 몸을 감춘 30년이 있었다. 3) 탄강하시어 신성, 불, 보살이 호소한 천하를 널리 구제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39년간 이 세상에 계시었다.⁴⁾

강증산이 종교적 차원에서 혼란스런 조선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면, 김항[호 일부]은 철학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가 제기했던 세계가 양반 사회가 중심이 되는, 송나라 상수철학인 ‘하도낙서’의 사상이었다. 일반 대중이 중심이 되는, 더욱 나아가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존’ 시대를 설명한 철학적 세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정역(正易)’사상이다.

낙서의 역이 23.5도의 기울어진 지구축의 논리인데 이를 바로 잡아 역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림 설명] 왼쪽이 낙서의 배상이고, 오른쪽은 정역의 배상이다.

일부의 그런 정역의 세계를 종교화한 사람이 증산이다. 증산교가 처음으로 알려진 이름은 흠치교(訶叱敎)였다.⁵⁾ 이 종교는 동학계열과 대응할

4)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p.12.

만큼 신흥종교계의 대세였다.⁶⁾ 증산교의 교리는 ‘신화일심(神化一心)’, ‘인의상생(仁義相生)’, ‘거병해원(去病解怨)’, ‘후천선경(後天仙境)’이었다.⁷⁾

‘신화일심’이란 신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라는 종래의 사상을 부인하고 적극적인 구원은 신에게 연지 않고 인간이 마음을 닦고 수양을 쌓아 일심의 경지 즉 영육일치의 경지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불교의 ‘해탈의 경지’라고 여겨진다.

‘인의상생’이란 신화일심의 과정으로 정신적과 물질적 자애를 도(道)

- 5) ‘흠치교(淸致教)’는 충청남도 비인의 김경훈(金京訥)[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에는 김경소(金京訥)이 50년 공부를 한 뒤 신에게 받았다는 ‘흠치흠치(淸致淸致)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 흠리치야도래(淸哩哆哪都來) 흠리함리(淸哩喊哩) 사바이(娑婆啊)’에서 유래하였다. 이 ‘태을신서’ 혹은 ‘태을주(太乙呪)’나 ‘여의주(如意呪)’로 알려지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어졌다. 결국 강증산은 최수운(崔水雲, 1824~1865)의 시천주(侍天呪)[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와 같이 이 태을주를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흠치’라는 발음이 ‘흠치다’와 발음이 비슷하여 부르지 않게 되었다.
- 6) 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1935)에는 흠치교 계통은 동학교 계통과 ‘대립(對立)’된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증산은 유불선을 지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천주’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 ‘대응(對應)’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7) 논문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다. 강증산을 신앙하는 종단은 크게 두 개 계열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고수부(고관례)계열이고, 또 하나는 무극계열(조정산)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서 두 계열은 강증산을 신앙하는 내용이 다르다. 고수부는 옥황상제의 강세를 신앙하고, 조정산은 구천대원조화주신의 강세를 신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수부 종단 창설은 1911(신해)년 음력 9월 19일 강세치성을 모신 후 종단 개장을 선포한다. 이 때 교단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태을주를 암송하면 종교적 신비 현상과 병이 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수부 종단으로 몰려들었는데 주문에서 흠치(흠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흠치교’, 아니면 1922년 동아일보에 ‘태을교’라고 칭했지 스스로 교단 명칭을 표명한 것은 없다. 고수부 계열에서 정식적으로 세상을 공포한 교단 명칭은 1919년 3.1운동 후 조선총독부의 감시가 심해지자 종단의 양성화를 위해 교단 명칭이 필요한 차경석(1916년부터 고수부의 중건을 원전 장악함)은 경남 황석산에서 고천제(告天祭)를 지내고 종단 명칭을 ‘보화교(普化教)’라고 하였지만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통과 하지 못하고, 이상호가 조선총독부와 타협하여 1922년 ‘보천교(普天教)’란 종단 명칭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래서 강증산을 신앙하는 종단의 공식적인 첫 명칭은 ‘보천교’이다. 무극계열(조정산)의 교단 창설의 시작은 1917년 안변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924년 전라도 구태인에 도장을 영선하면서 1925년 ‘무극도(無極道)’라는 종단 명칭을 안으로 사용하고 밖으로 들어난 종단 명칭은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教)’이다. 그리고 보천교의 이상호가 1923년 10월의 『보광』 창간호부터 1924년 3월 『보광』 4호까지만 발간하였는데, 위의 증산교 교리는 『보광』 창간호의 선포문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즉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무극도의 종지 신조 목적은 1925년 봄에 선포되었다고 해야 한다. (『전경』, 교운 2장 32절)

로 행함으로써 상생과 생존경쟁과 우승열등을 버리고 상호부조, 공존 공영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병해원’이란 일방적인 인의상생의 의하여 서로간의 자애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일체의 재화죄악[병]과 일체의 불평불만[원]을 버리고 풀어야 만인의 일심신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천선경’이란 인의상생·거병해원 하여 원만하게 성취한다면 각자 인간의 신화가 이루어져 개벽선경이 온다는 것이다. 불교의 극락이나 기독교의 천당처럼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내천(人乃天)’으로 요약된다고도 할 것이다.⁸⁾

강증산은 1907년[융희 원년]에 김형렬(金亨烈)[법호 태운(太雲)], 차경석(車京石)[본명 차운홍(車輪紅)], 안내성(安乃成), 채경대(蔡京大), 김인두(金因斗), 장기동(張基東)⁹⁾ 등의 제자를 얻어 교세를 떨쳤다.¹⁰⁾

이상에서 보듯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나라의 외세침략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고 사회신분제도의 재편과정으로 통하여 지극히 혼란하였으므로 종교적 대안으로 『현무경』이 태어났다고 할 것이다.

8) 논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내천 사상은 동학 2대 교주 최시형부터 3대 교주 손병희로 이어지는 사상이지 강증산의 사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강증산의 인간관은 인존사상이기 때문이다.”는 견해가 나왔다.

9) 장기동(張基東)의 호는 호봉(湖峰)이며 그의 동생으로 장기택(張基宅, 다른 이름은 기헌(基憲)), 장기준(張基準, 다른 이름은 基燦), 장기영(張基泳) 등이 있다. 논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나왔다. 채경대, 김인두, 장기동 3사람은 원태을교(고수부: 후세학자들이 사용한 명칭) 초기에 입도한 사람이지만 강증산을 따른 중도가 아니다. 흥범초씨가 1988년 월간 『천지공사』를 발간하였는데 창간호에 중도의 수를 조사하기를 중도가 된 경위를 밝힐 수 있는 27분, 그 경위가 미상인 34분, 수부공사의 3분까지 합해 총 64명이라고 적고 있다. 어떤 각도에서 조사하는 64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경』과 『대순전경』 어디에도 채경대, 김인두, 장기동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세란 표현도 쓸 수가 없고, 교세가 없기 때문에 떨쳤다는 표현도 맞지가 않다. 강증산을 신앙하는 초기 교단사는 다 강증산의 화전 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10) 朝鮮總督府, 村山智順, 『朝鮮の類以宗教』 ([발행지불명]: 圖書刊行會, 昭和10, 1935), p.298.

Ⅲ. 원전과 이본에 대한 검토

- 원전은 25쪽짜리로 ‘병세문’이 없는 본이다 -

모든 연구에 있어서, 특히 문헌자료를 중시하는 데에서 ‘원전’ 확정
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원전비평이란 영역이 있다는 것
이 그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원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원본 체제의 검토

아직까지 『현무경』은 한 차례도 ‘원전’을 검토한 일이 없다. 연구다운
연구가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각 종단에서 교재용으로 소위 원전이라
고 제시한 본이 몇 종류 있을 뿐이다. 이 경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순
천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1974~5년 김갑진[법호 용정]과 1985년 송병
섭[법호 월학] 그리고 2014년 박판수로 이어지는 연구가 그것이다. 여
기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장병길 교수가 1976년 종교사상의 차원에서
일부 논의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현무경』이 경전으
로 세상에 공포[교재용]된 것은 1968년 증산교 『현무경』이다. 경부와
반서체 그리고 점과 방점이 있는 홀 편[단편]짜리 한 권이었다. 그러
다가 1974년과 1975년에 순천도(順天道)·청도대향원(淸道大享圓)에
서¹¹⁾ 두[상·하] 편짜리 한 권인 『현무경』이 나타났다. 그것도 상·
하편의 구조가 다른, 두 종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본도
나타나 혼선이 빚어졌다. 1976년에는 장병길이 또 다른 편집된 『현무

11) 연구자가 입수한 몇 가지 본들은 『현무경』, 『현무경 원본』, 『현무경 기초교재』, 『현무
경』, 『현무경 교본』 등이 있는데, 증산교, 순천도, 청도대향원 등이 관여하고 있다. 특
히 청도대향원은 『현무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순천도의 계보를 잇고 있다. 말하자면
청도대향원은 순천도의 한 분파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방면 연구가 없는 연구자로서
무엇이라고 논의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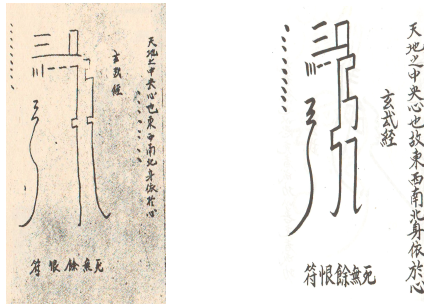
경』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입수한 문헌 정보는 1) 무극대도교본, 2) 증산교본, 3) 순천도본, 4) 대순진리회본 등이다.¹²⁾ 이 가운데 1)은 극히 일부분만 있는 본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있는 본들이다. 다만 4)는 줄이거나 편집된 것이다. 줄였다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수록되면서 경부가 생략된 채 실렸다는 의미이고 편집되었다는 것은 장병길이 1976년 『대순종교사상』의 부록으로 실린 본을 의미한다.¹³⁾

1) 무극대도교본[1935]

이 본의 문헌정보는 1935년에 발행된 『朝鮮의類似宗教』에서 찾아낸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경부가 실려 있는데, 오늘날 순천도·청도대향원에서 유통되는 본과 적지 않게 다르다. 특히 점과 방점의 있고 없음[유무]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부에서도 다른 면이 적지 않다.

그 한 경부가 ‘사무여한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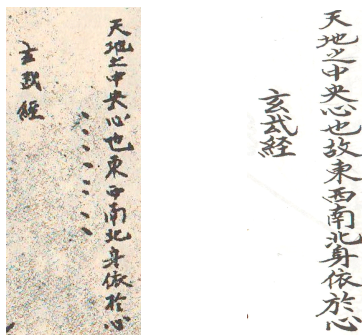
[그림 설명] 왼쪽 그림은 1935년의 전승본이고, 오른쪽 그림은 1985년 전승본이다.

12) 이 글을 모두 집필한 후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현무경』을 입수했다. 태극도편집위원회, 『현무경』, 『진경(眞經)』 (부산: 태극도출판부, 1989); 이효진, 「현무경도해원리」, 『주해중화경집』 (서울: 선학연구원[대흥기획], 1990); 이증성, 『천지개벽경 연구』 (서울: 대흥기획, 1996); 송병우, 『현무경과 병』 (창원: 중화출판, 2006); 장재진, 『현무경 해의』 (부산: 장신원, 2008)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판본은 오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어 별로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태극도출판부에 퍼낸 책은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13) 장병길은 『현무경』을 형식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1) 도부(圖符), 2) 3) 4) 5) 병세문(病勢文)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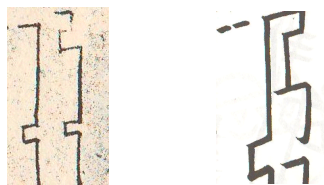
1935년 무극대도교 본에는 ‘心也東西南北’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1985년 송병섭 본과 그 이후 연구자[박관수]들이 확보한 본에는 글자가 방점이 없다.

이 방점은 송병섭과 박관수 등의 연구에서 그 획수나 점을 바탕으로 그 수리학 의미를 부여하였으므로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자[무극대도교] 본은 ‘玄武經’이 변체자이지만 후자 본은 속체자로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설명] 왼편은 방점이 있으나, 오른편은 방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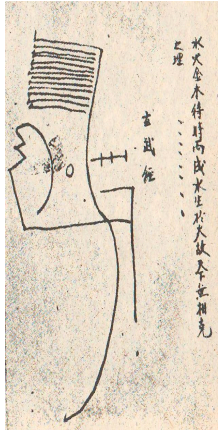
이들 두 본은 방점뿐만 아니라 경부에서도 구별된다.



[그림 설명] 왼쪽은 1935년 본이고, 오른쪽은 1985년 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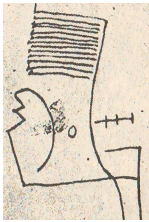
왼쪽은 무극대도교 전승본이고 오른쪽은 순천도교에 속하는 송병섭 전승본이다. 누가 보아도 적지 않은, 과장하면 두 전승본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경부도 비슷한 차이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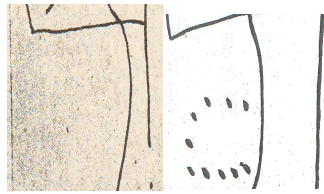


[그림 설명] 왼쪽은 1935년의 전승본이고, 오른쪽은 1985년 전승본이다.

점의 무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많은 부분 차이가 드러나고 글씨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표기되어 있다.



[보기 1]



[보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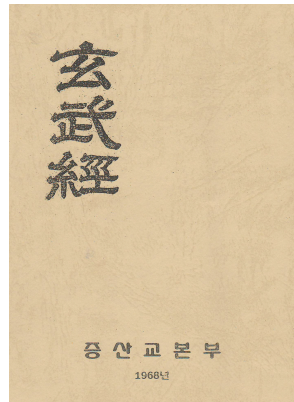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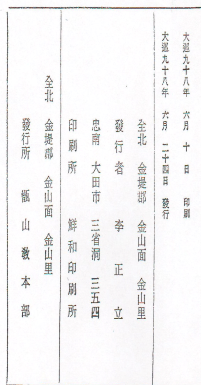
[보기 1]의 경우처럼 원편[무극대도교본]과 현재 유통되는 오른쪽의 네모꼴 형태에 선을 그은 부분이 다를 뿐 아니라 기하학적 선들도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 2]는 점이 있고 없음을 확인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이든 현무경에 관한 연구는 이 무극대도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본 가운데 가장 연대가 높기 때문이다.

2) 증산교본[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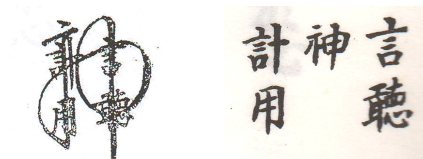
이 본은 현무경을 세상에 알리는 데 ‘첫걸음을 놓은 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8년은 현무경이 세상에 ‘공포(公布)된 해’이라고 할 만하다. 그 이후 소위 순천도의 장기준 본이 1969년에 등장하여 1975년의 김삼일본과 1985년의 송병섭본이 나타날 뿐 아니라 1974년 『전경』[대순진리회 경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본은 『玄武經』이란 별쇄본으로 유통되었고 책 뒤에는 이정립(李正立)이 쓴 「현무경지(玄武經誌)」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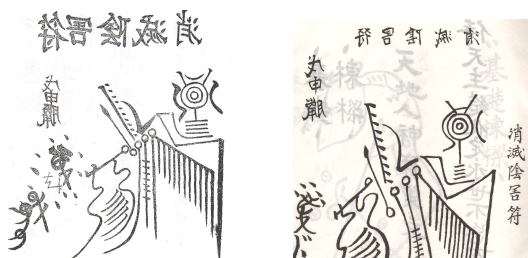


[그림 설명]왼쪽은 인허권이고 오른쪽은 현무경 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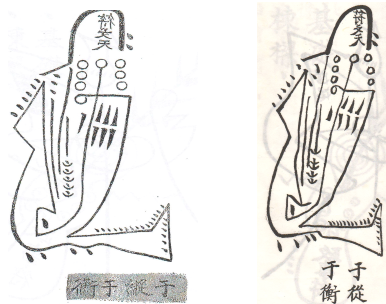
이 증산도 본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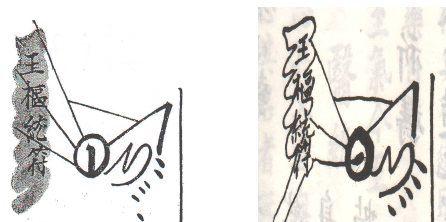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보기 1]의 경우, “언청(言聽)/신(神)/계용(計用)”의 부분이 ‘신(神)’자로 ‘언청(言聽)’과 ‘계용(計用)’을 덮어 있다. [보기 2]의 경우, ‘소멸음해부(消滅陰害符)’는 반서체와 정서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정서체가 없다. [보기 3]의 경우, ‘우중우횡(于從于衡)’의 글씨체가 가로쓰기[횡서(橫書)]나 세로쓰기[종서(縱書)]로 차이가 있다. [보기 4]의 경우, ‘玉樞統符’의 주변 모습이 다르기도 하지만, ‘○’ 안의 ‘1’과 ‘一’의 차이가 있다.

이 별쇄본의 책 끝[권말]에는 이정립이 1968년[대순 39년]에 쓴 「현무경지」가 보인다. 1909년 정월 2일에 증산이 지은 것을 차경석(車京石) [법호 월곡(月谷)] 집에 두었는데, 1912년 가을에 김형렬[법호 태운(太雲)]이 고부인(高夫人)에게 청하여 베낀 ‘유일무이한 사본’이다. 이 사본은 유의경(柳宜卿)이 몰래 가져갔고 이를 1926년 이청음(李靑陰)이 다시 베낀 것이라고 한다.

이제 世間에 相傳하는 것은 모두 柳宜卿氏 寫本에서 寫出 相傳한 것인데 錯誤된 곳이 많아 世人의 疑惑을 惹起하므로 이제 李靑陰先生 寫本에 依하여 印寫하여 公布하고 後日 崔氏[차경석의 며느리]가 秘藏한 原本이 나오기를 姑埃하는 바이다.¹⁴⁾

증산교본은 바로 이청음이 것이지만, ‘착오된 곳이 많아 세인의 의혹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포한다는 것이다.

3) 순천도본[1974, 1975]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장기준(張基準)[법호 사수(師首)]이 베낀 것이라고 한다. 송병섭[법호 월학, 1937~]이 쓴 「張師首와 玄武經에 관한 略記」에 의하면, 그러하다.

14) 이정립, 『玄武經[권말에 李正立 玄武經誌]』(김제: 증산교본부, 1968[교재용, 비매품]).

張師首는… 계축[1913] 음 9월19일 井邑 立岩面 大興里로 高首 婦를 禮訪하고 天主님 9年 公事를 終筆成編하신 唯一無二의 法經인 玄武經이 秘藏된 造化괘를 9월24일에 열어 이를 寫本했다.¹⁵⁾

이후 장기준은 1917년 음 4월 5일에 김경학(金京學)의 허락을 받아 4월 7일을 기하여 유춘래(柳春來), 김중숙(金仲淑), 최내경(崔乃京) 등에게 현무경을 가르친 후 유춘래에게 책임을 맡겨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이 송병섭의 주장하는 현무경의 유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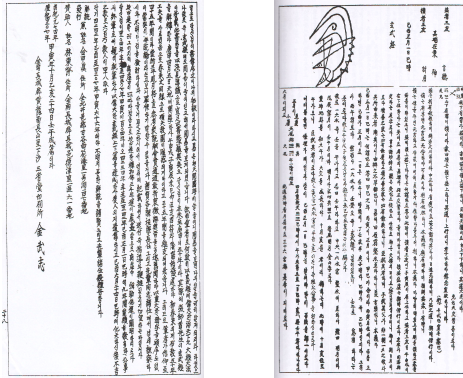
순천도·청도대향원에서 전승되는 현무경은 오늘날 유통되는 본의 기본이 되었다. 상·하편으로 구성된 한 권짜리인데, 이들도 다른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상편이 ‘병세문’이고 하편이 경부와 반서체 그리고 점과 방점이 있는 편제이고 다른 종류는 이와 반대[병세문이 하편]의 편제이다.

(1) 김갑진본[1974]

『현무경』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김갑진(金甲眞) [법호 용정(龍井)]이다. 그는 1974년 『참고중설다술구문론(參考衆說多述舊聞論)』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는데 순천도 자체 내의 신앙인들을 위한 내부 교재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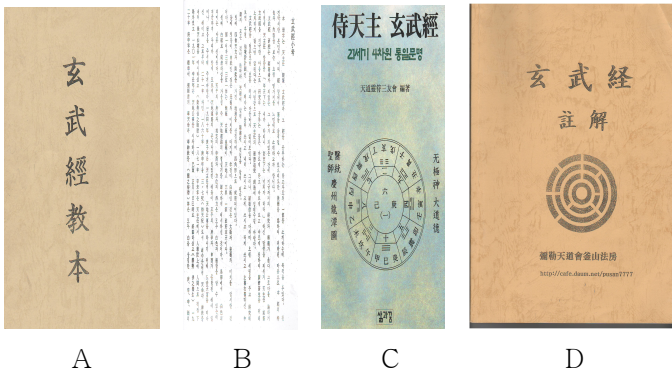
김갑진은 1909년부터 시작하여 1794년까지 ‘66년’만에야 해설서를 내게 되었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이 책은 ‘해설 겸 발행’이 김갑진이고 ‘찬조인’이 임동계(林東悌)이며, 책을 편집한 사람이 김무지(金武志)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책 내용은 김갑진이 쓰고 그 경비는 임동계가 제공하였으며 필경은 김무지가 했다는 뜻이다.

15) 송병섭, 「張師首와 玄武經에 關한 略記」, 『玄武經教本』(1985, [교재용, 비매품]), p.51.



[그림 설명] 왼쪽이 편집후기와 같은 성격이고, 오른쪽은 ‘중산이 친필 현무경 원고 해설론’이란 첫 장이다.

편집 후기에서 밝힌 대로, 김갑진은 『주역』의 방법에 의하여 『현무경』을 해석한 단초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 방법은 1985년 이후부터는 송병섭[범호 율학]에 의하여 이어지고 2014년 박관수에 의하여 집대성된다. 오늘날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현무경』이 바로 이 본이다.



A B C D

[그림 설명] A는 1985년 송병섭이 처음 낸 현무경 연구서이고, B는 A에 실린 현무경 연구논문이고, C는 1998년 천도영부삼우회가 송병섭의 연구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고, D는 박관수가 낸 현무경 주해[비매품]의 표지이다.

(2) 김삼일본(청도대향원),¹⁶⁾ 『현무경원본玄武經原本』[1975]

판권에 의하면, 증산의 탄생 105년인 1975년[을묘 10월]에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금곡의 청도대향원(淸道大享圓)에 소속되어 있던 김삼일(金三一)이 필사한 문헌이다. 인쇄자가 전남린(田南麟)인데, 인쇄소는 전주시 고사동 1가 55-6 서화당이다.



[그림 설명] 왼쪽은 인허판이고, 오른쪽은 그 책자의 표지이다.

16) 청도대향원 창건자는 백봉 김삼일(1924~)이다. 김삼일은 증산법종교(강증산의 딸 화은당 강순임, 1904~1959)를 창립한 구암 김병철(1905~)의 큰 아들이다. (홍범초, 『법증산교사』, p.781) “성부(강증산)의 명에 의하여 삼일이는 내 아들이 되었다.”는 화은당의 말을 들은 것은 그의 나이 열일곱 살 때(1940)였다. 그 후 화은당이 항상 “삼일이는 내 아들이라.”하고 끔찍히 사랑하였으므로(같은 책, p.782) 김삼일은 1965년 대향원(大享院)을 설립하여 신단 우측에 구암과 화은당의 영정을 모셨다.(같은 책, p.786) 구암 김병철은 1937년 9월17일 처음으로 화은당 강순임(그날 자살을 결심)을 이리 목천포에서 만나 부부의 의를 맺게 되었다.(『화은당실기』 pp.15-20; 『법증산교사』, p.633) 1943년 10월 15일 화은당은 치성을 올린 다음 날 성부(강증산)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는 내가 쇠술밥을 먹지 않으리니 옥석정(玉石鼎)을 구해오라. 또 현무경을 구해오라.” 하였다. 김구암은 건천에 사는 이종허에게 연전(年前)에 맡긴 현무경을 찾고 이준의에게서 돌솥을 구하여 왔다.(『화은당실기』, p.42; 『법증산교사』, p.637) 김구암이 이종허에게 현무경을 맡긴 내력은 아래와 같다. 김구암이 24세(1928)되던 7월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경북 청도역에서 내려 풍각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비바람을 만나 한 초가에 들어가니 집주인은 임주근이라는 나병환자이고 그 부인은 맹인이었다. 비가 그치지 않아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중창(中窓)위에서 현무경을 발견하였다. 주인에게 이 책의 내력을 물으니 지난해 7월에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바랑에서 이 책을 내주면서 “이 책에 있는 부(符)를 매일 3장씩 그리 되 법수를 올리고 그 물에 탄부하면 내외의 병이 완쾌하리라. 책은 후일 찾아 가겠노라.” 말하고 간 후에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김구암은 그 책이 여느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1주일간을 빌려 이종허로 하여금 등사하고 원본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법증산교사』, 증산법종교 소장 현무경 전래경위, pp.637-638)

이 책은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무경』의 한 종류이다. 앞의 김갑진 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좀 더 상세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

책의 표제는 『玄武經 原本』인데, 1975년에 청도대향원 김삼일이 ‘근사(謹寫)’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1) 기존의 다른 현무경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2) 한자본과 한글본을 함께 냈다는 점이다.



A B C

[그림 설명] 왼쪽 A는 상편인 ‘병세문’이고, 중앙 B는 하편인 경부이고, 오른쪽 C는 한글본의 경부이다.

이 책의 첫 페이지는 ‘청도대향원’의 전경이 있고, 둘째 페이지는 몇 개의 빈 도형이 있고 그 바깥 좌우에 ‘吉花開吉實’[오른쪽]과 ‘凶花開凶實’[왼쪽]이 각각 기록이 있다.

빈 도형은 그림은 오른쪽과 같다. 이 빈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알 수가 없다. 아래에서 처음 줄은 전체가 한 칸이고 위로 둘째 줄은 3칸 셋째·넷째·다섯째 줄은 각각 5칸씩이다. 주역의 괘 형식을 보는 듯하다.

3페이지부터 ‘현무경’이 보이고 ‘병세문’으로 전개된다. 병세문은 송 병섭[1985] 이후에 등장하는 『현무경 교재』 하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현무경 원본』과 『현무경 교재』의 차례는 상편과 하편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위의 두 현무경의 내용은 다른 부분이 등장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己酉年 正月初一日巳時’라는 기록이다. 보통 본들은 ‘一日’인데 여기서는 ‘초일일’이다. 이러한 시간 기록 방법은 이 책이 거의 유일하다. ‘初一日’이란 시간 기록 방법은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대순진리회본[1974, 1976,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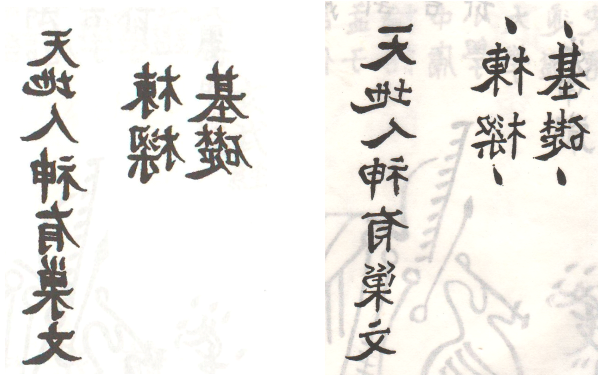
대순진리회에서 현재 확인할 있는 본은 4종류이다. 1) 1974년 『전경』본, 2) 1976년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부록으로 실린 본, 3) 2012년 이한우 가정의 전승본,¹⁷⁾ 4) 2014년 중국어판 『典經』본이다.

1)은 현무경이 『전경』에 편입되면서¹⁸⁾ 경부가 생략되고 반서체가 정서체로 표기되었다. 그 저본은 대순진리회 서울 중국동 도장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하지는 못하였다.¹⁹⁾ 2)는 『전경』의 편집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장병길본이다. 그렇다면, 중국동 대순진리회 도장본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병길은 편집된 부록으로 남겨서 그 실체 확인이 어렵다. 3)은 신도의 집에서 발견된 본이다. 그러나 이 본은 적지 않은 부분에 편차가 있어서 그 저본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4)는 중국어판 『典經』을 내면서 경부의 그림과 반서체가 복원된 본이다.

17) 김형렬의 외증손자 이진호[1919~2002]가 보존한 본이라고 한다. 그의 가계와 전승 관계는 아래와 같다. 1대 김성녀[1882~1970, 김형렬의 동생] - 남편 이환구[1879~1952] - 2대 이진호[불계 아들] - 김정순[1924~?] - 3대 이한우[소장 복사자]. 그런데 이 본은 적지 않은 부분이 잘못 적어서 서지적 가치가 높지 않다.

18) 불교에서 이러한 편입 과정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가령 『부모은중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인데, 일본에서 불교의 경전을 정리하면서 정식으로 불교경전으로 편입되었다.

19) 5월 대순진리회 처성의례가 있기 전에 들은 증언이다. 증언자는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박상규 소장이다.



[그림 설명] 왼쪽이 대순진리회 소장본이고, 오른쪽은 다른 유통본이다.

‘기초/동량’에 위아래 방점이 없다. 이외는 거의 같다. 다만 한 가지 궁급한 일은 전경에서 옥추통부가 반서체로 되어 있는데 중국판 옥추통부는 정서체이다. 그렇다면 이들 두 본은 본래가 다른 것이니 아니면 오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2. ‘병세문’의 출전

- 대순진리회 『전경』을 중심으로

여기서 ‘병세문’은 장병길의 용어를 사용한 결과이다. 1976년 그는 『대순종교사상』을 출간하였는데, 『현무경』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그런데 그 본은 편집된 것으로써 1) 현무경, 2) 도부, 3) 기초동량, 4) 영가, 5) 병세문 등으로 나누어 실었다. 순천도를 중심으로 소위 ‘상·하편 한 권’에서 ‘상편’[김삼식본]이나 ‘하편’[김갑진본]에 속하는 부분을 말한다.

‘병세문’ 전체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확인하고자 한다.

A [病有大勢/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B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C [大病出於無道/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月來 禮章

D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E 病勢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

F [聖父/ 聖子/ 聖身]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判斷/ 大人 大義無病

G 三界伏魔大帝神位遠鎮天尊關聖帝君/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孔子魯之大司寇 孟子善說齊梁之君/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人曰東學/ 都是教民化民/ 近日日本文神武神 并務道通

I [朝鮮國]

上計臣 中計臣 下計臣 無依無托 不可不文字戒於人/ 宮商角徵羽 聖人乃作 先天下之職 先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 聖之職 聖之業

J 天下紛紜 自作死黨 以不安聖上之心 以不安聖父之心 以不安聖師之心

K 維歲[次]戊申[1908]12月7日/ 道術○○○敢昭告于/ 惶恐伏地 問安氣體候 萬死不忠不孝 無序身 泣祝於君 於父 於師 氣體候大安 千萬伏望

L [天地鬼神祝文]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 其君何立 有父無子 其父何立 有師無學 其師何立/ 大大細細 天神鬼神垂察焉 佛之形體 仙之造化 儒之凡節

M 無奈八字 至氣今至 願爲大降/ 欲速不達 侍天主 造化定永世不忘 萬事知/ 九年洪水 七年大旱 千秋萬歲歲 盡仙佛儒/ 一元數六十 三合爲吉凶度數/ 十二月二十六日 再生身 再生身

N [五呪]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 道通天地報恩/ 至曰天地禍福至 今日至無忘/ 氣曰天地禍福氣 降曰天地禍福降

○ [聖師/ 醫統/ 無極神]

慶州龍潭/ 大道德 奉天命 奉神教/ 大先生前 如律令/ 審行先知
後覺元亨利貞/ 布教五十年工夫

일련 번호	하편 구조	전경의 출전	비고
1	A	행록 5-38/94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9	I	"	
10	J	없음	
11	K	공사 3-42/151	체면장
12	L	3-40/150	
13	M	3-41/150	천지귀신주문
14	N	예시 88/339	
15	O	"	

이 도표에서 병세문은 행록 5장 38절, 공사 3장 40~41절, 예시 88절 등에서 출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련번호 10인 J의 경우는 『전경』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

상제께서 거처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에 발견되었는데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의 글귀와 다음과 같은 글들이 써어 있었도다.²⁰⁾

이 말씀은 증산이 화천 뒤에 발견되었다는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는 말씀이 A~I까지이다. 말하자면, 『현무경』과 관계없

20) 『전경』, 행록 5장 38절.

이 흰 병의 마개 뚜껑에 별도로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병세문의 출처는 『현무경』의 원전이 아니라 후대에 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대에 붙일 수 있다는 근거는 또 있다. 이정립이 고증한 1968년 증산교 본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69년 『순천도교본』 ‘참고하실 점’에서 “원본은 1,100자가 넘었으나 장사수 선생님이 1,100자로 교정”했다고 한다든지 병세문이 뒤에 오지 않고 앞에 오기도 한다든지, 경문이 서로 다르기도 한다든지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IV. 기존의 두 가지 접근 방법과 실패

- ‘확인되지 않은 원전’으로 연구 자체가 문제이나 방법/방식은 유효 -

연구란 원전에 대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원전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그 설정 자체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종교 경전으로 말씀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1974년 김갑진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된 주역적 접근이나 1990년 이효진에 의하여 경부와 결합시켜 진행된, 간지적 접근 등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감안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경』 ‘말씀의 세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루고자 한다.

21) 논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분이 있다, “지금까지 읽어내는 방식/방법은 1) 주역적 접근, 2) 간지적 접근, 3) 물형적 접근, 4) 축문부적의 접근, 5) 천도의 운행적 접근 등이 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3)~5)가 어떤 논문이나 글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1. 주역적 접근 방법

- 김갑진 · 송병섭 · 박관수

이 방법은 1974년 김갑진에 의하여 개발되어 1985년 송병섭에 의하여 계승되어²²⁾ 2014년 박관수에 의하여 집대성되었다.

『현무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²³⁾은 김갑진[호: 용정]이다. 그 실체가 1974년에 교단 내부용으로 펴낸 『참고중설다술구문론(參考衆說多述舊聞論)』이다.²⁴⁾ 이 책의 맨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정리되어 있다.

익자3우: 하지에 곤으로 시작[始坤]된다. 곤☷괘는 획수가 익(益)이나 허(虛)다. 손하절(巽下絕)☴, 이중절(離中絕)☲, 태상절(兌上絕)☱ ≡ 3범제(凡弟)가 합리화하여 곤삼절(坤三絕)☷괘를 성도(成道)하는 고로 위지익자삼우(謂之益者三友)라고 한다.

22) 송병섭은 상편이라고 보고 상편은 서종과와 정종과로 하편은 유통과와 총결과로 나누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종과를 4장[이조장, 허무장, 적멸장, 도수장]으로, 유통과를 7장[병세장, 약유장, 위탁장, 주공장, 결사장, 대축장, 성도장]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서종·정종·유통·총결 등으로 중분류를 삼은 것은 박일문의 논리로 불경 체제를 도입한 것이고 총 11장으로 나눈 것은 유교의 경전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하편은 원래 원전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서종과의 ‘익자3우~계용’과 총결과의 ‘심행~공부’를 각각 17자로 맞춘 점 등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3) 순천도교단의 문헌에 의하면, 장기준[법호 사수]이 1916년에 현토하고 정부의 명칭을 달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유영춘[법호 춘래]이 1920년에 이를 전수하였다. 1969년 모산 박일문이 『순천도교본』(처음 이름은 『초학교본』)을 만들고 김시목이 재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준이나 유영춘이 만들었거나 관한 자료들이 확인할 수 없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김갑진이 1974년 교단용으로 펴낸 『참고중설다술구문론』 끝에서 ‘1909년[기유]부터 1974년[갑인]까지 66년에야 불명치 못한 해설을 냈다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4) 본래 이 책자는 제목이 없고 책장의 접은 면에 ‘참고중설(參考衆說)인 다술구문론(多述舊聞論)’이라 되어 있어서 연구자가 붙인 이름이다. 이 책자에는 ‘증산(龜山)의 친필(親筆)인 해탈론(解脫論)’이라, 『현무경』 해설서가 들어가 있다. 이 책은 28장 즉 55쪽[맨 뒤는 백지], 판형은 46배판 필사체이다. 그 서지 사항을 다음과 같다.

解脫兼發行 姓名 金甲眞 住所 全北 井邑郡 甘谷面 花峰里 一號洞 147番地
贊助人 姓名 林東偉 住所 全南 長城郡 長成邑 德津里 1區161番地
西紀1974 檀紀 4307년 甲寅年 10月乙亥 24日壬午 成編이라
全南 長城郡 黃龍面 長山里 下沙 三省堂印刷所 金武志

이 연구가 바로 『현무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것으로 최초라고 생각된다. 1985년 이후 송병섭[법호 율학]이 서너 권의 책자를 펴냈으나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닌, 자료집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2014년 박관수가 비매품으로 낸 『현무경 주해』이다.

손자3우: 동지에 건으로 시작[始乾]된다. 건☰괘는 획수가 손(損)이나 영(盈)이다. 진하련(震下連)☳, 감중련(坎中連)☵, 간상련(艮上連)☶ 3범제(凡弟)가 합리화하여 건삼련(乾三連)☰괘를 성도(成道)하는 고로 위지손자삼우(謂之損者三友)라고 한다.

그러므로 손익영허(損益盈虛)는 여시해행(與時偕行)이로다.²⁵⁾

‘익자삼우’와 ‘손자삼우’는 원래 『논어』권5 계씨 제16에 나오는 구절이다. 도움이 되는 벗이 셋, 해로운 벗이 되는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벗, 성실한 벗, 박학한 벗은 도움이 되며, 편벽한 벗, 면유불실한 벗, 편녕(便佞)한 벗은 해롭다.²⁶⁾

그런데 김갑진은 이러한 원래의 의미 대신 『주역』의 괘효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위:손(巽)]☳[아래:진(震)] 풍하유뢰(風下有雷)가 익(益)이라 단왈(象曰) 익(益)은 손상익하(損上益下)하니 민설무강(民說無疆)이요 자상하하(自上下下)하니 기도대광(其道大光)이라 후천교체(後天交替)함이로다.

☳[위:간(艮)]☳[아래:태(兌)] 산하유태(山下有澤)이 손(損)이라 단왈(象曰) 손(損)은 손하익상(損下益上)하니 기도(其道)가 상행(上行)이니 군자이(君子以)하여 건염색욕(愆念塞欲)하니니라.²⁷⁾

김갑진이 『현무경』을 『주역』의 괘효로 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님[증산상제]이 서전서문(書傳序文)이 나의 비결(秘訣)이라 하시고 역(易)은 후천개벽시(後天開闢時)에 쓸 글이니 주역(周易)을 보면 나의 일을 가히 알게 되리라 하셨으니 고로 즉 현무경에도 주역이 들어 있고 해서 주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이필자(然而筆者)로 하감(何敢)히 이현무경(以玄武經)에 위대(偉大)한 치천하지 대경대법(治天下之大經大法)이 개재차서(皆載此書)함을 이천견박식(以淺見薄識)으로 개족이서발은오의(豈足以書發蘊奧矣)오.²⁸⁾

25) 김갑진, 『參考衆說多述舊聞論[甌山親筆 玄武經原橋 포함]』(미상[비매품], 1974), 首.

26)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27) 김갑진, 앞의 책, 8b.

이 인용문에서 왜 김갑진이 『주역』으로 『현무경』을 풀이한 것인지를 짐작할 것이다. ‘역은 후천 개벽 때에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나[증산상제]의 일을 알게 되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유정월일일사시(己酉正月一日巳時)’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갑기지년 병인이 정월이니 갑기가 합이라. 병인월위(丙寅月位)에다 유(酉)를 정(正)하면 기유(己酉)가 정월(正月)이요 일월(一日)은 임오(壬午)니 시두(時頭)에 정임야반(丁壬夜半) 병자시(庚子時)라 사시(巳時) 즉 을사시(乙巳時)인지라 그 부(符)가 병오부(丙午符)로다. 그러나 일육수(一六水)가 즉 임계(壬癸) 즉 현무경이 붙어 있으니 임오로 위용(爲用)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갑술자인진은 날이라 경(經)이고 미사묘축해유는 씨라 위(緯)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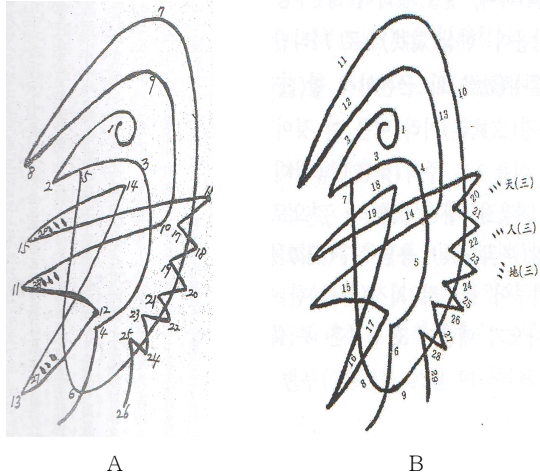
이 글은 ‘기유정월일일사시’에 대한 풀이이다. 왜 ‘병오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여튼 김갑진이 주역을 적용하여 『현무경』을 읽어내는 방법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갑진은 두 가지 점에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 1) ‘기단재동(其瑞在東) 언청(言聽)/신(神)/계용(計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 그러면 이 경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풀이를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답변은 10여년 후 『현무경』 연구에 뛰어난 송병섭[법호 월학]에게 들을 수 있다.

아래 그림 A는 1985년 이후 송병섭 등이 수리화한 그림이고 B는 2014년 박관수가 수리화한 것이다. 두 수리화는 서로 차이가 많다. 그만큼 임의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현무경』 연구라는 것은 사회적 검증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28) 같은 책, 28a.



[그림 설명] 왼쪽 A는 송병섭 연구이고, 오른쪽 B는 박관수의 그것이다.

오부(午符) 운필체수 29획은 이구착종을 뜻하는데, 문왕8괘에서 서남방 2곤지(二坤地)가 9·2 착종을 하니 금화교역(金火交易)으로 곤삼절을 건너가는 다리가 놓아진 것이다. 이로써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건너가게 되니, 중생제도(衆生制度)에서 창생세계(蒼生世界)가 이루어진 것이다.²⁹⁾

이 인용문은 박관수[2014]의 소위 ‘오부(午符)’에 대한 ‘이석(理釋)’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수’에 의거한 풀이는 금방 한계가 드러난다. 이미 앞에서 보여준 대로 ‘점’이나 ‘방점’은 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송병섭과 박관수는 『현무경』이라는 경전을 너무 축소시키고 박제화해서 종교의 역사성(役事性)이 무더지게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9) 박관수, 『현무경주해』 (부산: 미륵출판사[비매품], 2014), p.69.

2. 경부와 결합한 간지적 접근

- 이효진

이 방법은 1990년 이효진李孝鎭이 처음 창안한 것이 아니다. 장기준-유춘래-김갑진-송병섭 등이 이미 사용했던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다. 송병섭 등이 12경부[양6경부+ 음6경부]로 나눈 것을 24경부로 체계화했을 뿐이다.³⁰⁾ 이효진 이전에는 경부 개념이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 송병섭 등은 주역식 장별과 경부를 결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1 益者章, 2 水火章, 3 天地章[死無餘恨符], 4 充者章, 5 動於章,
6 誓者章, 7 天文章[消滅陰害符], 8 基礎棟樑章[符文天, 陰陽符,
政事符], 9 耳目章, 10 祝文章, 11 宙宇章[虛靈符, 智覺符, 神明符],
12 受天章, 13 兜率章

이와 같이 송병섭은 장별식과 경부식을 섞어서 사용하였다. 더 나간 논리가 양6경부와 음6경부 등 12경부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효진은 『현무경』 전체를 경부식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현무경』에는 3가지 대법적인 ‘천문 음양 정사’에 관한 공사규정이 있고 이것을 다시 연의하는 4대강령이 있다. 여기서 4대 강령이란 ‘천·지·인·신’ 4계(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세분하여 ‘24개의 공사규범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천·지·인·신’이란 곧 10간10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와 지지12도[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와 인1도와 신1도 함께 24개의 도부이다. 그리고 이 모든 설계도참에는 시천주의 기운을

30) 이효진은 『현무경』을 천·지·인·신으로 보고 모두 24장으로 나누고 각각 경부의 이름을 붙였다. 천도편(天道篇)[天]을 10장으로, 지도편(地道篇)[地]을 12장으로, 인도편(人道篇)[人]을 1장으로, 신도편(神道篇)[神]을 1장으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23장과 24장을 소위 ‘대향진설도’를 인부도와 신부도로 나누는 데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합축시켜 신통력을 붙여 두셨으므로 정해놓은 각부(各符)의 공사 규범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기틀이 열리도록 물샐틈 없는 도수를 짜놓으셨다. 그러므로 현무경을 깊이 연구한다면 상제님의 심오한 ‘천지운로 개조사업’의 전모가 한 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상제님의 천하경영방책이 소명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³¹⁾

이효진은 천도편(天道篇)[천]을 제1장 갑부도³²⁾[선지포태] 제2장 을부도[불지양생] 제3장 병부도[유지육대] 제4장 정부도[미지관왕] 제5장 무부도[무신랍] 제6장 기부도[소멸음해부] 제7장 경부도[허령부] 제8장 신부도[허령부] 제9장 임부도[지각부] 제10장 계부도[신명부] 등으로, 지도편(地道篇)을 제11장 자부도 제12장 축부도[정사부] 제13장 인부도 제14장 묘부도[음양] 제15장 진부도 제16장 사부도[천문부] 제17장 오부도 제18장 미부도[필구] 제19장 신부도 제20장 유부도[옥추통부] 제21장 술부도[사무여한부] 제22장 해부도[심령신대] 등으로, 인도편(人道篇)을 제23장 인부도[대향진설도]로, 신도편(神道篇)을 제24장 신부도[대향진설도]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³³⁾

이효진의 24경부론은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향진설도’를 둘로 나누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

결론을 내리면, 이들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원전에 대한 오류로 인하여 참고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취급하는 것은 『현무경』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방식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들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증산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현학적인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들 접근 방법/방식은 세상에 공포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 종파/종단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풀이 방식/방법이 공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31) 이효진, 『현무경도해월리』, 『주해증화경집』 (서울: 선학연구원[대흥기획], 1990), p.434.

32) 본 연구에서는 ‘경부’로 정리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그가 ‘부도(符圖)’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그대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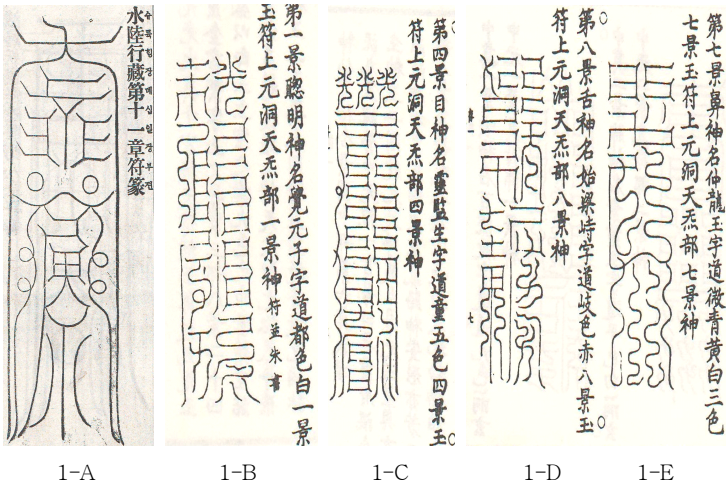
33) 이효진, 앞의 책, p.347.

V. 『현무경』 말씀의 새로운 풀이[주해/주석/해석]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1) 경부, 2) 반서체 등, 3) 점과 방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부(經符)에 대하여

여기서 ‘경부(經符)’라고 함은 ‘현무경부(玄武經符)’를 줄여서 쓴 용어이다. 세속적으로 부적(符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직은 학술적으로 보편성을 갖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부(符)’, ‘부전(符篆)’, ‘부도(符圖)’, ‘도부(圖符)’, ‘부록(符錄)’ 등 이를 이르는 용어들이 있다. 대순진리회 『전경』은 ‘부도(符圖)’[교운 1장 66절/182~189쪽]라고 쓰고 있다.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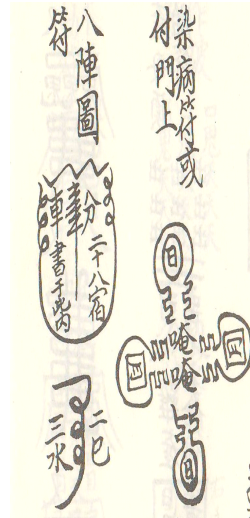


2-A



2-B

[보기 2]



2-C

[보기 1]은 1-A는 16세기 우리나라 『옥추경』의 부적이고 1-B~E는 중국의 『운급칠첩』의 부적들이다. 1-B는 총명신(聰明神), 1-C는 눈신(目神), 1-D는 코신(鼻神), 1-E는 혀신(舌神) 등의 부적을 보여준다.

[보기 2]는 2-A이 1909년 현무경부이고 2-B와 2-C는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의 부적이다. 현무경부 즉 경부가 [보기 1]의 기하학적 부적이 회화적 부적으로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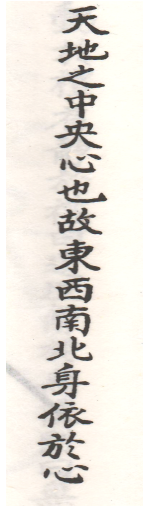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주류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다. 이런 까닭 등으로 ‘부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현무경 부’ 즉 ‘경부(經符)’라고 쓰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 경부는 고유의 이름을 가진 것들도 있다. 가령 ‘소멸음해부(消滅陰害符)’, ‘허령부(虛靈符)’ 등과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현무경』에는 18개의 경부가 있다. 이들 경부는 보통 그 앞에 ‘짧은 경문’이 붙어 있다.

[형식]

짧은 경문 + 경부

[형태]



A



B

[그림 설명] 왼쪽 A는 경문이고, 오른쪽 B는 경부이다.

A는 ‘天地之中央 心也 故東西南北身 依放心’이 짧은 경문이라면, B는 ‘玄武經’[死無餘恨符]라는 경부이다. 그렇다고 ‘짧은 경문 + 경부’의 형식이 일정한 것도 아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문과 경부도 있다. 가령 하나의 경문에 경부가 몇 개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법 길다거나 내용이 다르다고 여길 정도의 경문에 경부가 하나일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들 형식은 ‘경문 + 경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경문과 경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세속적인 부적이라면, 경문은 부적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고자 하는 내용이고 부적은 그 내용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내려주

는 ‘하늘의 문서’이다. 도교의 경전 가운데 알려진 『옥추경』³⁴⁾이 있다. 이 경전에 보이는 부적을 두 자리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오행[목화토금수]과 구요(九曜)³⁵⁾가 서로 부딪치고 싸울 경우의 경문이 있다고 하자. 천존에 의하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더욱 더해지는 병이 베개를 숨기고 고질병이 몸을 억누르나 시간이 흘러도 치료는 되지 않아 의원을 불러도 효험이 없어서 5신(五神)은 주인이 없고, 사대(四大)는 걷어 들이지 못한다. 혹은 5제(五帝) 3관(三官)의 앞, 태산(泰山) 5도(五道)의 앞,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앞, 산림초목(山林草木)의 앞, 영단(靈壇) 고적(古跡)의 앞, 성황(城隍) 사묘(社廟)의 앞, 이항(里巷) 정조(井籠)의 앞, 사관(寺觀) 탑루(塔樓)의 앞, 흑시 지부(地府)의 36옥(三十六獄) 명관(冥官) 72사(七十二司)에는 모든 원왕(冤王)이 여기에 도달하니 묶여서 끌려갔다. 혹은 저주(呪呪)를 맹세하고 이를 서약(誓約)하여 속박되는 바가 되었다. 혹은 장벽과 짐짐(埽負)을 빌리고 이를 깔으며 바치는 바가 되니, 삼세(三世)가 피제사를 지내고 다른 위협이 원수를 일으켜 허물과 괴리(咎尤)로 담장을 쌓고 자기만 지키는 창고를 가지니, 모두 사죄하여 머리 숙이며 곧 이 경을 독송하라.

이를 『옥추경』에서는 「해오행구요극전형충장(解五行九曜剋戰刑衝章)」이라는 경문을 사용[여기서는 독송 즉 읽는다]한다. 이 경문에 대한 부적이 증언/증거로 따라야 한다.

또 다른 보기로 널리 알려진 구령과 삼정을 부르는 경문이 있다. 『전경』에도 「구령삼정주(九靈三精呪)」[교운 2장 42절/210~211쪽]가 있다.

34) 『현무경』에도 ‘두솔허무적멸이조(兜率虛無寂滅以詔)’라는 경문에 ‘옥추통부(玉樞統符)’라고 하는 경부가 있는 맨 끝 자리에 등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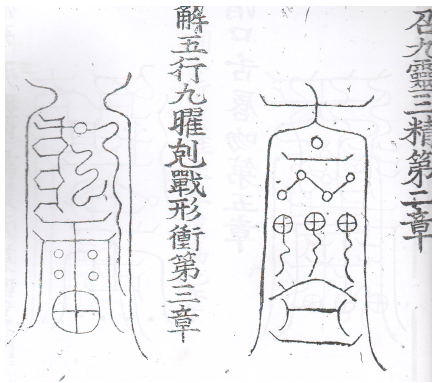
35) 구요는 법어로 Navagraha인데, 인도의 역법(曆法)에 해당한다. 일요(日曜)는 태양, 월요(月曜)는 태음, 화요(火曜)는 형혹성(熒惑星), 수요(水曜)는 진성(辰星), 목요(木曜)는 세성(歲星), 금요(金曜)는 태백성(太白星), 토요(土曜)는 진성(鎮星), 라후(羅睺)는 황변성(黃旛星), 계도(計都)는 표미성(豹尾星) 등을 말한다.

몸 가운데는 구령(九靈)이 있다. 어찌 이를 부르지 않겠는가? 첫째가 천생(天生)이요, 둘째가 무영(無英)이요, 셋째가 현주(玄珠)요, 넷째가 정중(正中)이요, 다섯째가 자단(子丹)이요, 여섯째가 회회(回回)요, 일곱째가 단원(丹元)이요, 여덟째가 태연(太淵)이요, 아홉째가 영동(靈童) 따위로 이를 부르면 길(吉)하다.

몸 가운데는 삼정(三精)이 있다. 어찌 이를 부르지 않겠는가? 첫째가 태광(台光)이요, 둘째가 상령(爽靈)이요, 셋째가 유정(幽精) 따위로 이를 부르면 경사(慶事)가 있다.

5심(五心)이 번거롭고 답답하거나, 6맥(六脈)이 어지럽거나, 사지(四肢)가 안경을 잃거나, 모든 관절(百節)이 불편해지면, 마땅히 이 경을 독송하라.³⁶⁾

이 방면의 경문을 「소구령삼정장(召九靈三精章)」이라고 한다. 이들 두 경문에 따른 부적은 다음과 같다.



이들 부적은 ‘천존’이 ‘허락하신 옥새이며 명령문서’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천존을 대행하는 상징물인 것이다.

36) 『도장』, 「옥추경」, 지경, “天尊言：身中九靈，何不召之，一曰天生，二曰無英，三曰玄珠，四曰正中，五曰子丹，六曰回雷，七曰丹元，八曰太淵，九曰靈童，召之則吉，身中三精，何不呼之，一曰台光，二曰爽靈，三曰幽精，呼之則慶，五心煩懣，六脈搶攘，四肢失寧，百節告急，宜誦此經。”

이들 부적은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하는 종교의례 행위에 속한다. 대행증거물을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³⁷⁾

- 1 삼키는 부적[吞符]
- 2 불사르는 부적[焚符]
- 3 붙이는 부적[粘符]
- 4 축원하는 부적[祝符]
- 5 땅에 묻는 부적[埋符]
- 6 몸에 차는 부적[佩符]

강증산도 불사르는 방법은 자주 사용했고 땅에 묻는 방법도 가끔 사용한 바 있다.

지금 논의한 바를 수궁한다면, 『현무경』의 경문과 경부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다.

무오년[1918] 겨울 목포에서 옥화(獄禍)가 대기(大起)하였을 때에 차월곡(車月谷) 선생이 ‘소멸음해부(消滅陰害符)’를 사출(寫出)하여 여러 간부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러서 소화(燒火)케 한 일이 있었고 신유년[1921] 가을에 또 ‘심령신대(心靈神臺)’, ‘허령부(虛靈符)’, ‘지각부(智覺符)’, ‘신명부(神明符)’의 4부(符)와 ‘문필(文筆)’, ‘정사(政事)’, ‘천문(天文)’의 3부만 사출하여 여러 간부들에게 나누어주어서 수련시(修鍊時)에 사용하였었다. 그 뒤로 이상 8부(符)가 세간에 전파되었으나 사출할 때마다 착오가 있게 되었었고 이 밖에는 사본이 전하여진 바 없었던 것이다.³⁸⁾

이상은 이정립이 「현무경지(玄武經誌)」에 밝힌 내용이다. 1918년 겨울 목포에서 증산교 간부들이 잡혀갈 때, 차경석(호 월곡)이 ‘소멸음해부’를 한 부 베껴서 주어 각자 그러서 불에 태운 일이 있다. 1921년 가을에는 ‘심령신대’,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의 4부와 ‘문필’,³⁹⁾

37) 구중희, 『옥추경 연구』 (서울: 동문선, 2006).

38) 이정립, 『玄武經[권말 玄武經誌 포함]』 (김제: 증산교본부, 1968[교재용, 비매품]).

39) 여기서 ‘문필부’는 ‘기초동량’에 나오는 경부이다. 경부 가운데 그림의 하나를 한자 ‘문필(文筆)’로 읽은 것인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천문(天文) 음양(陰陽)

‘정사’, ‘천문’의 3부만 베껴서 여러 간부들에게 나누어주되 수련할 때에 사용하였다.

이정립의 위의 증언은 ‘소멸음해부’가 신변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증산상제의 천지공사를 처결하는 옥새인 경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신변보호에 비교하여 ‘심령신대’,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의 4부와 ‘음양’, ‘정사’, ‘천문’의 3부는 수련을 할 때의 경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부의 기능은 옥추경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또 하나의 증언이 있다.

4월 7일 임오일에 또 치성(致誠)을 마치고 현무경 정중(正中)에 “이목구비(耳目口鼻) 성리대전(性理大全) 80권 진묵대사(震默大師) 총명도통(聰明道通)을 지단(紙壇)을 접어 위패(位牌)를 모시고 해자축인(亥子丑寅) 4부(符) 공부(工夫)를 유춘래(柳春來),⁴⁰⁾ 김중숙(金仲淑, 최내경(崔乃京) 3인에게 공부를 가르치사 진묵(震默) 단하(壇下) 4부(符) 공부를 3일간에 마치고 또 치성을 당신님[증산상제]전에 바치고 비복신법(飛伏神法)으로 을유일(乙酉日), 유미사병술일(酉未巳丙戌日), 무자인정해일(戊子寅丁亥日), 해유미술자일(亥酉未戊子日) 자인진부(子寅辰符)를 4일(日) 합일주일(合一週日) 파석(罷席) 후에 매일 3부(符) 일기법(日記法)을 오전 오후 귀인사용(貴人時用)에 결국보국법(結局補局法)인 낙서(洛書) 간생문(良生門) 기문용사(奇門用事)로 동지후 순교(順教) 하지후 역교법(逆教法)을 전수하시고 ...⁴¹⁾

이상은 김갑진(金甲眞)[법호 용정(龍井)]이 1974년에 교단내 교육용으로 펴낸 『참고중설다술구문론(參考衆說多述舊聞論)』에서 뽑아온 것이다.

『현무경』이 종교의례에서 어떻게 활용[김갑진은 이를 ‘공부(工夫)한 다’고 했다.]이 되었는지 보여준다.

정사(政事)라는 경문이 있으므로 문필부로 보지 않고 ‘음양부(陰陽符)’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0) 원래의 세속적인 이름은 류영양(柳永春)이다.

41) 김갑진, 『參考衆說多述舊聞論[甌山親筆 玄武經原橋 포함]』(미상[비매품], 1974).

[보기 1]

耳目口鼻 性理大全 80卷 震然大師 聰明道統… 종이 단[紙壇] 위패
震然 단 아래… 亥·子·丑·寅 4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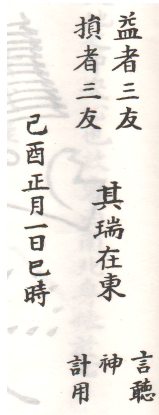
[보기 2]

乙酉日 등… 子·寅·辰 3경부를 4일 동안 돌러가면서 배치[기문
팔문⁴²⁾] 자리를 끝나면 매일[오전 오후 귀인시] 3경부를 베끼다

치성할 때 해·자·축·인 4경부와 자·인·진 3경부를 합하면 총
해·자·축·인·진 5경부를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성을 수
련의 범주로 넣는다면, 5경부를 활용했다는 증언인 셈이다. 이와 같은
방식/방법으로 첫 경부를 풀이해본다.

경문: 益者三友/損者三友 其瑞在東 言聽/神/計用
己酉正月一日巳時
경부: ‘현무경부’

[보기 3]



A



B

[그림 설명]왼쪽 A는 경문이고 오른쪽 B는 경부인데,
B는 A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기문팔문을 낙서법으로 하되 동지는 수교법으로 하지는 역교법을 한다.

이를 설명한다면 ‘현무경부’는 앞의 경문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운 친구의 3부류와 손해 보는 친구 3부류가 있다. 그 상서로운 기운[瑞氣]은 동쪽에 있다. 말하고 듣는 것, 신명, 세상을 계산하고 운용하는 것 등을 살펴야 한다. 기유년[1909년] 정월 1일 사시(巳時) [9시~11시로 세상일의 출발하는 시간]부터 해야 할 시점을 제시한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출발 즉 선천의 세속적 천지운행이 후천의 이상적 인간중심의 운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부는 ‘천지공사’의 시작을 알리고⁴³⁾ 체결하는 ‘증산상제의 옥새로 명령서’인 것이다.

지금까지가 총괄부문이라면 세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1) ‘익자삼우(益者三友) 손자삼우(損者三友)’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벗이 셋, 해로운 벗이 되는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벗, 성실한 벗, 박학한 벗은 도움이 되며, 편벽(便僻)한 벗, 면유부실(面柔不實)한 벗, 편녕(便佞)한 벗을 해롭다.⁴⁴⁾

여기서 말하는 이로운 3친구와 해로운 3친구는 상징적인 종교적인 함의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친구는 단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물이고 세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2) ‘기서재동(其瑞在東)’에 대하여

이 말의 의미는 ‘그 서기가 동쪽에 있다’. 그러면 왜 동쪽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43) 안진경은 경부로 시작하는 것은 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탁월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44) 『논어』 집실 권5 계씨 제16,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무릇 경을 암송할 때에 먼저 반드시 옥추령부(玉樞靈符)를 정동(正東) 제단에 놓거나 혹은 벽 위에 걸고 마음을 씻고 욕망을 멀리하며 지성으로 재계하며 의관을 엄정하게 하고 크게는 도단(道壇)을 세워 열고 작게는 당사(堂舍)에 청소하고 지내라. 수반에 꽃을 꽂고 분향하며 예를 올려라. 이를 부딪치는 즉 고치를 7회 하고 정심신주를 위시하여 지설보경장에 한정하고 소리를 고르며 마음속으로 천존을 상상하며 3회 혹은 7회 읊조려라. 이를 끝낸 뒤 소원하는 바를 쫓아 지경 15장(학선회도장부터 보경공덕장까지)의 1장만을 21(3·7)회 혹 49(7·7)회하라. 읊조린 1장에 해당하는 부적을 분축(焚祝)하라. 또한 보계장과 보웅장(상하)을 읊은 후에 신장퇴문을 3회 읽으며 주문을 21(3·7)회를 읊조린 뒤에 단을 내려와 천존보상을 목념하면 자연 감응할 것이다.⁴⁵⁾

이 인용문은 『옥추경』에서 뽑아온 것이다. 여기서 동쪽은 기도처의 방향이다. 한밤중 단을 만들어놓고 동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 그 서기(瑞氣)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서기’와 ‘동쪽’은 의례상 동일한 한 짝이라고 보면 좋을 듯하다.

3) ‘언청(言聽)/신(神)/계용(計用)’에 대하여

장병길은 “사람의 언청[말]대로 신의 계략을 이용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였다. 즉 ‘신조(神助)’를 얻는다는 것이다. ‘신은 후천에서는 사람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사람을 받들게 된다’는 전제가 ‘언청신계용(言聽神計用)’에 깔려 있다.

장병길은 ‘언청신계용’을 인간계의 ‘언청 계용의 신명’으로 풀이하였

45) 凡誦經時 必先奉玉樞靈符 於正東하며 (或壁上에 掛之) 洗心遠慾하며 至誠齋戒하며 嚴整衣冠하며 澄心定氣하며 大則開建道壇하고 小則淨掃堂舍하며 設花水盤하고 焚香作禮하며 叩齒七遍하고 淨心神呪로 爲始하여 至說寶經章으로 爲限하고 調聲念誦하고 存想天尊寶相하며 課誦天經(淨心呪로 爲始 至說寶經章) 三遍或七遍하고 誦畢에 所希所願을 隨하여 地經15章中(自學道希仙章으로 寶經功德章 장15중)에 1장만 三七遍 惑 七七遍하고 誦後1장에 當한 符篆을 焚祝하고 且寶偈章報應章(上下)을 誦後 神將退文을 三遍을 誦하며 呪文을 三七遍을 誦하여 畢壇後에 默念天尊寶相하면 自然感應하느니라.

다. 또 다른 전제는 ‘언청신계용’ 하도록 강성상제께서 사전에 공사를 하셨으나, 계용에 대한 행위만은 인간 스스로가 신을 부려서 공사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만은 상제께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인간에게 맡기셨다.⁴⁶⁾

그러나 연구자는 언[말하기]과 청[듣기]의 주체가 신/신명인 것은 후천/인존 시대의 계용[활용도수]을 말하고 싶다.

4) ‘기유정월일일사시(己酉正月一日巳時)’에 대하여

이 연월일시[연:기유년, 월:정월, 일:1일, 시[진]:사시]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종교적 시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기유년은 증산이 죽은 해인 1909년이다. 간지로 말하면 유(酉)년의 해이다. 증산은 ‘유’에 대하여 ‘해(亥)’와 ‘자(子)’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보았다. 즉 해가 유[시간으로는 17:00~19:00]에 들어가면 세상은 밤이 된다. 그러므로 21:00~23:00[해]와 23:00~01:00[자]는 구별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다시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 다시 뜨기 시작하는 시간은 03:00~05:00[인]와 05:00~07:00[묘], 그리고 07:00~09:00[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의 사물은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로이 구축된 것이므로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다가 해가 하늘의 중앙에 오면 즉 09:00~11:00[사]와 11:00~13:00[오], 그리고 13:00~15:00[미]에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게 된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고 닫으니 마침내 새로운 세상이 이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⁴⁷⁾

이와 같이 ‘유’ 즉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새로운 세상 [선경]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46) 장병길, 앞의 책, p.200.

47) 『진경』, 예시 85절, “또 중도 김 병선에게 ‘日入西 亥子難分/ 日出寅卯辰 事不知/ 日正巳未未 開明/ 日中爲市交易退 帝出震’ 이라고 글 한 장을 써주셨다.”

이와 같이 종교적 시간으로 풀이하는 데에는 ‘1월’이 아니고 ‘정월’이라고 하는 연유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우주관에서 정월은 ‘인(寅)’으로 출발한다. 또 ‘1일’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물리적 시간이라면 초하루 당연히 ‘초1일(初一日)’이라고 써야 한다. 그런데 ‘초’가 빠진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날짜 기록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사시’의 의미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전통적 우주관에 근거한다.

정조 33년[1757]에 영조 원비인 정성(貞聖)왕후[?~1757]의 상장례가 2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숙종 계비인 인원(仁元)왕후[?~1757]의 상장례가 3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치러졌다.

두 상장례에서 같이 을좌신향으로 혈을 정[재혈]하고, 능을 만들게 되는 일[역사]도 역시 같이 사시(巳時)에 이루어진다. 편의상 정성왕후의 상장례를 A, 인원왕후의 상장례를 B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능[역사]을 만드는 시간
 - A 3월19일 사시
 - B 4월16일 사시
- 풀을 베고 흙을 파는 시간
 - A 3월20일 오시
 - B 4월19일 사시
- 금정을 여는 시간
 - A 5월초2일 사시
 - B 6월13일 묘시
- 시보[시호]와 시책[시호를 설명한 책자]을 듣는 시간
 - A 5월25일 사시
 - B 5월27일 진시에 시보와 시책 들려오고 사시에 빈전에 시호[증시]를 올리며, 미시에 명정을 쓰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일의 시작은 사묘진에 이루어진다. 그중 사시가 처음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축시에 발인과 견전제를 하거나 찬공[관의 바깥 관]과 현공[관의 안 관]을 열게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장사는 사묘진신에 이루어진다. 이는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

시에 땅이 열리며 인시에 인간의 일이 시작되는 동양의 우주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⁴⁸⁾

이런 의미에서 『현무경』의 정월 1일 ‘사시’는 풀어야 한다. 정월 1일을 현무경의 원고를 끝낸 ‘월일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즉 ‘종필(終筆)’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현무경』의 축문으로 5월 2일의 일자가 확인된다.⁴⁹⁾ 물론 미리 예견하여 썼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산은 평소 우주에 참여한다[천지공사]는 종교적 시간을 중심으로 전개하므로 ‘천지공사의 출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주는 해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가 질 때와 뜰 때, 중천에 떠서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리하여 시장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마칠 때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전경』 예시 85절에 나타난 증산의 ‘천지공사’의 시간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교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경부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문은 곧 경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반서체(反書體)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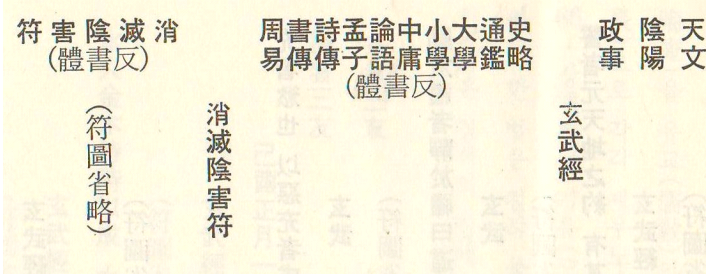
‘반서체(反書體)’란 ‘정서체(正書體)’의 상대어라 할 수 있다. ‘글자체’를 바르게 적는 표기 형식이 정서체라면, 글자체를 반대로 즉 뒤집어서 적는 표기 형식이 되는 것이다.⁵⁰⁾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4년 대순진리회에서 『전경』을 엮으면서였다. 당시 바른 표기의 활자 대신 뒤집은 표지의 활자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반서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거의 전무후무한 글씨체가 아닌가 여겨진다.

48) 구중회, 『능묘와 풍수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08), pp.441-443.

49) 증산교본부[1968] 『현무경』 ‘玄武經誌’는 5월 2일에 지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박관수는 반서(返書)라는 용어[앞의 책, p.112]로 쓴다. 그러나 왜 (返書)라 했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왜 어째서 이런 ‘반서체’를 고안하게 되었을까? 그 기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기 전에, 곧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宙宇’

‘우주(宇宙)’와 ‘주우(宙宇)’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반서체와 정서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표기 방식이 뒤집혀 있거나 내용이 뒤집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표현은 오주(五呪)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후천의 오주는 선천의 오주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시대	오주
선천	勇力智慧 六甲六丁 遁甲八門 造化風雲 地理天文
후천	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

천문지리란 천문과 지리이다. 천문은 천체의 온갖 현상을 관찰하여 때의 변화[時變]를 아는 것이고 지리는 지구상의 여러 상태, 지세를 아는 것을 말한다.

풍운조화는 바람과 구름이 생기고 멸망하는 현상을 말하며, 팔문둔갑은 칠십이둔[72遁]을 벌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육정육갑은 양과 음

의 신장을 일컫는다. 용력과 지혜는 도통의 핵심이다. 말하자면 이 오주는 천지인의 일[事]에 도통을 성취하기 위한 주문으로 생각이 든다.⁵¹⁾

『현무경』의 후반 구조는 정서체인 ‘천문(天文)/음양(陰陽)/정사(政事)’에서 시작하여 반서체인 ‘一’⁵²⁾까지 정서체와 반서체가 서로 교체되면서 짜여 있다.

- A 정서체[天文/陰陽/政事] vs 반서체[史略/通鑑/大學/小學/中庸/論語/孟子/詩傳/書傳/周易/一字五結]
- B 정서체[消滅陰害符] vs 반서체[消滅陰害符/戊申臘]
- C 반서체[基礎/棟樑/天地人神有巢文] vs 정서체[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基礎棟樑]
- D 정서체[基礎/棟樑] vs 반서체[魂魄 東西南北]
- E 반서체[基礎棟樑/符天文] vs 정서체[飛者走者/于從/于衡]
- F 정서체[基礎/棟樑] vs 반서체[政事符/曰有道/道有德/德有化/化有育/育有蒼生/蒼生有億兆/億兆有願戴/願戴有唐堯/基礎棟樑終]
- G 정서체[耳目口鼻/性理大全 80卷/震默大師/聰明道通] vs 반서체[心靈神臺]
- H 반서체[祝文/維歲次己酉正月二日昭告/化被草木賴及萬方/魂返本國勿施理此伏祝] vs 정서체[大亨/陳設圖/…享員/佛陀彌阿無南]
- I 정서체[宙宇詠歌/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宙宇壽命/至氣今至願爲大降/天地誠敬信] vs 반서체[虛靈符/武夷九曲//智覺符/武夷九曲//神明符/曲九夷武]
- J 정서체[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受天地寂滅佛之養生/受天地以詔儒之浴帶] vs 반서체[冠珥]
- K 정서체[兜率虛無寂滅以詔//玉樞統符] vs 반서체[一]

이상은 정서체와 반서체, 반서체와 정서체가 서로 교체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11개의 회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세계라는 것이다.

51) 장병길, 앞의 책, p.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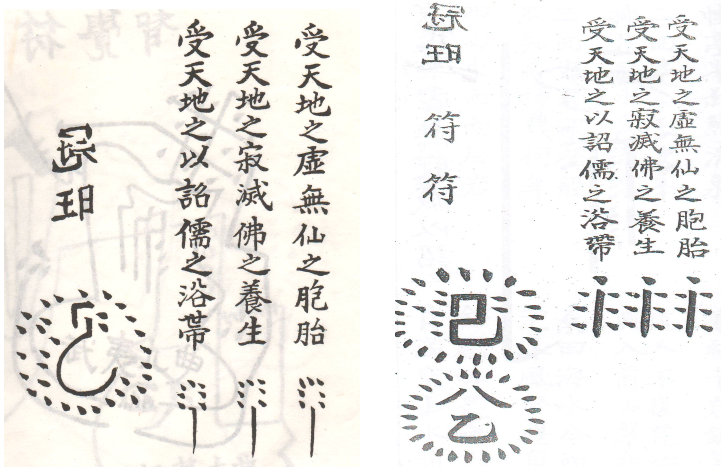
52) 여기서 한일 자 ‘一’은 정서체가 아니라 반서체로서 쓴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一’ 대신에 ‘1’로 표기된 본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서체인 ‘一’자가 180도 돌아서 반서체인 ‘一’이 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반서체는 거울에 비친 다른 저쪽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방식이라 여겨진다. 즉 후천/인존의 세계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체론적인 회전운동은 반서체의 후천/인존 시대 뿐만 아니라 정서체의 선천/천·지존 시대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반서체와 정서체가 지향하는 전체 즉 융합된 세계의 표상이라 여겨진다.

정서체와 반서체의 서로 교체되는 회전운동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역사의 공간이자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은 ‘관왕’ 경부에서 확인된다. 하늘과 땅[천지]의 ‘허무’는 선교의 포태[포+태]에서 나오고, ‘적멸’은 불교의 양생[양+장생]에서 나오며, ‘이조’는 유교의 육대[목욕+관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선천시대의 일이다.

그러나 후천/인존 시대에서는 관왕[관대+제왕]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림 설명] 왼쪽은 김갑진본이고, 오른쪽은 김삼일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소위 ‘12운성(運星)’[다른 이름 포태양생법]을 설명이 필요하다. 장생(長生), 목욕(沐浴), 관대(冠帶), 임관(臨官), 제왕(帝旺), 쇠(衰), 병(病), 사(死), 장(葬)[다른 이름 묘(墓)] 포(胞)[다른 이름 절(絶)], 태(胎), 양(養) 등을 말한다. 일생의 모습으로 음양론과 오행론을 들어 하늘과 땅[천지]과 자연[4계절]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비교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천강	장생	목욕	관대	임관	제왕	쇠	병	사	장	포	태	양
천기대요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장	포	태	양
협기변방서	장생	목욕	관대	임관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남북조의 신라 시대가 어머니 안에서 아이를 싸고 있는 난막(卵膜)·태반(胎盤) 및 탯줄 즉 삼이 생기는 선교로 본다면, 고려 시대가 삼을 길러 태어나는 불교로 볼 수 있고 조선 시대가 아이가 태어나 목욕하고 벼슬을 하는 유교로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이 증산이 보는 선천의 시대 양상이다.

그러나 증산의 천지공사로 인하여 하늘과 땅[천지]과 자연[4계절]은 출세와 왕성한 활동의 시기로 비유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의 운명이다. 증산의 당대가 외세[일본 등]에 의하여 혼란을 겪고 있으나 후천세계가 기다리는 인존시대의 개막인 셈이다. ‘관왕(冠旺)’을 거울에 비친 글씨체 즉 반서체로 쓴 것은 이러한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장생으로 말미암아 목욕 등 12단계는 모두 역전이 된다. 양[+]이 없어지면 음[-]이 생기고 음이 없어지면 양이 생기니 이것이 음양 2기운의 나누어짐이다. 양[+]의 임관이 즉 음[-]의 제왕이 되고 음의 임관이 즉 양의 제왕이 되니 이것이 4계절의 표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리와 역리, 나뉘고 통합이란 지극히 묘한 것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10간으로 음양을 나누고 5행으로 양이 통합되고 음이 분리되니 이는 하늘과 땅[천지]과 자연의 이치이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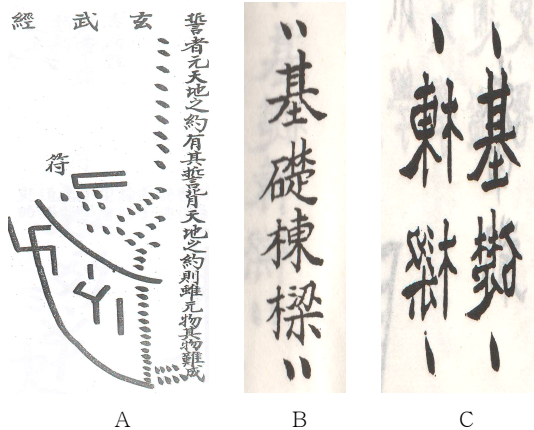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나 결국에서 ‘인존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관점이다.

반서체는 정서체가 거울에 비친 모양의 글씨이다. 이 의미/상징은 후천세계/‘인존시대’라는 표현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宇宙’가 선천 세계의 표현법이라면 ‘宙宇’는 후천 세계/인존 시대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3. 방점(傍點)과 점(點)에 대하여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주로 붙고 특수한 경우[‘基礎棟樑’]에 위·아래로 동시에 붙는다. 방점의 숫자도 한 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개가 붙는 경우도 있다.

[보기 1]



[그림 설명] 왼쪽 A는 글자의 왼쪽에 붙은 경우이고, 중앙 B는 위·아래도 각각 2개, 오른쪽 C는 역시 위·아래로 한 개씩 붙인 사례이다.

53) 윤록 등, 『흡정협기변방서』 (上海: 茂記書莊, 1916), 811-155, “由長生而沐浴12位皆逆轉 陽死則陰生 陰死則陽生 此2氣之分也 陽臨官則陰帝旺 陰臨官則陽帝旺 此4時之會也 順逆分合 俱極妙理 論十干則分陰陽 論五行則陽統陰尤 天地自然之義”

글자에 방점을 붙이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다. 첫째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이고 둘째가 한자에 있어서 관주(貫珠)를 다는 풍속에서이다.⁵⁴⁾

훈민정음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나 길고 짧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음운학상의 용어로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 소위 4성이라고 한다.

평성은 글자의 왼편에 방점이 없는, 가장 낮은 소리였다. 상성은 처음에는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로 방점을 두 개를 찍었다.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로 왼편에 방점을 하나 붙였다. 입성은 끝을 빨리 닫는 소리였다.

또 다른 경우는 ‘관주’를 다는 것이다. 관주란 글이나 글자가 잘 되었을 때, 글자 옆에 점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찍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를 찍을 경우 보통 붓 뚜껑을 쓰는데, 보통 붉은 색을 쓴다. 그러나 점으로 찍을 때는 검은 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산은 글자에 방점을 찍을 때 보통 왼쪽에 자리하고 한 개 혹은 두 개인 것은 훈민정음과 형식이 같다. 그러나 위·아래로 방점이 오는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보기 1] A·B·C에서 어느 경우도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에 관련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전경』에 흥미로운 기록이 보인다.

또 어느 날 상제께서 종이에 철도선을 그리고 북쪽에 점을 찍어 정읍(井邑)이라 쓰고, 남쪽에 찍은 점을 사거리라 쓰고, 가운데에 점을 찍으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이시더니 대흥리로 떠나실 때에 그 점을 치시고 “이 점이 되는 때에 세상일이 다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⁵⁵⁾

54) 점이 쓰이는 경우는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 제작 원리로 ·[하늘], -[땅], | [사람] 등으로 사용되는 아래 ‘·’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5) 『전경』, 예시 52절.

이 『전경』 말씀에 나타나는 ‘점’은 위치를 나타낸다. 어느 과정을 밟으며 필요한 지점에 점을 찍었던 것이다.

또 다른 말씀에서 점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형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재전주동곡 생사판단(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중삼 황오 도합 十五간으로 하고 가운데에 큰 간이 둘 아래로 큰 간이 하나이니라. 상체계서는 그 위 十五간 중의 가운데 간에 “단주수명(丹朱受命)”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열풍 뇌우 불미(烈風雷雨不迷)”라고 황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우보 상취 등양명(禹步相催登陽明)”이라 황서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밀판까지 따라서 내려붙이고 그 위에 “양정 유월 이십일 음정 유월 이십일(陽丁六月廿日陰丁六月廿日)”이라 쓰시니라. 궤안에 “팔문둔갑(八門遁甲)”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설문(舌門)” 두 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는 二十四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통감(通鑑)·서전(書傳) 각 한 질씩 비치하였도다.⁵⁶⁾

글자 주위에 점을 찍었다는 말씀은 그 성격을 밝혀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약방에 『통감』과 『서전』을 각 한 질씩 비치하셨다’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 항목에서 “사략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등이 반서체로 표현되었고 이는 ‘후천/인존’ 세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를 수궁한다면, ‘약방’에 대한 종교적 상징은 미래의 이정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체계서 화천하시기 전해 선달 어느 날 백지에 二十四방위를 돌려 쓰고 북관에 혈식천추 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良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二十四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맺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 명숙(全明淑)이

56) 같은 책, 공사 2장 9절. 건명조로 처리한 것은 연구자가 임의적인 것이다.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르셨도다. 57)

‘백지에 24방위를 둘러쓰고’과 점인지 글씨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미상 점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글씨였다면, 복판에 ‘혈식천추 도덕군자’란 글자를 썼다고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기로 든 『전경』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점은 하나의 위치/지점을 표현하는 듯하다. ‘예언’과 관련된 그것[위치/지점]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심고(心告)의례’가 있다.

1) 양지 온 장에 사람을 그려서 붙이고 2) 제사 절차와 같이 설위시키고 3) 종도들에게 그곳을 향하여 상악천권(上握天權)·하습지기(下襲地氣) 식으로 4번 배례하면서 4) 마음으로 소원을 심고하는 의례를 행하였다. 심고란 하늘의 권세를 위로부터 자신의 몸속에 끌어드리고 아래로부터 땅의 대기(大氣)를 끌어올려 몸속에 넣는 자세를 말한다. 이 자세는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 중찰인의(中察人義) 등과 대응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⁵⁸⁾

여기서 한지(韓紙)가 아닌, ‘양지(洋紙)에 사람을 그려서’ 붙였다는 것도 점을 찍은 행위와 같은 경우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양지’란 동양의 선교, 불교, 유교는 물론이고 서교[서학 즉 기독교]까지 포함된다는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증산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후천/인존 세계에 대한 상황이 아닌가 짐작된다.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를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에 여지가 없느니라.”고 보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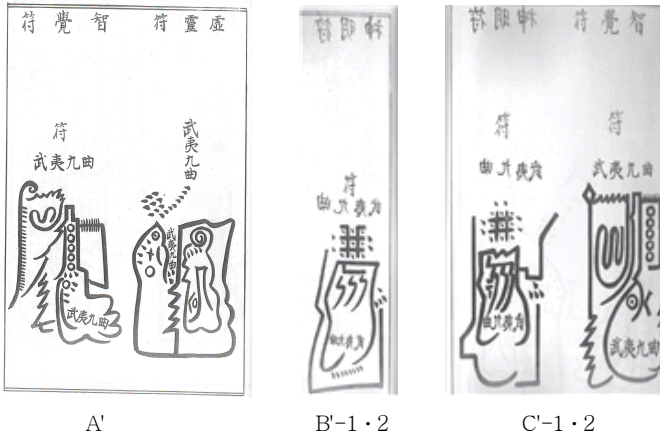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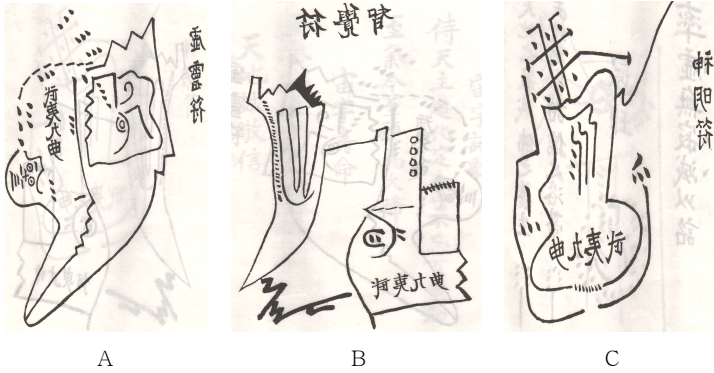
57) 같은 책, 예시 50절.

58) 장병길, 앞의 책, pp.159-160.

이야기를 바꿔서 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무이구곡’이 들어 있는, 세 가지 경부[허령부, 지각부, 신명부]를 들어보기 한다. 이 논의는 반서체와도 불가결한 관련이 있기도 한다.

[보기 2]



[그림 설명] 위의 A~C 모두 일반적인 경부이다.
아래의 A'~C'는 김삼일본의 경부이다.

이 경부들 즉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 등은 반서체로 써 있다. 반서체는 후천/인존의 표현이므로 무이구곡은 그 이상 세계 속에서도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들 세 경부의 이름은 『전경』, 공사 3장 39절에 정리되어 있다.⁵⁹⁾

‘허령부’란 도를 전하는 경부이다. 이는 하늘 처음으로 열리는 밤 시간인 자시의 창조 행위와 같다. 그것은 마치 수레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공자처럼 모든 욕심을 버리고 비울 때 가능한 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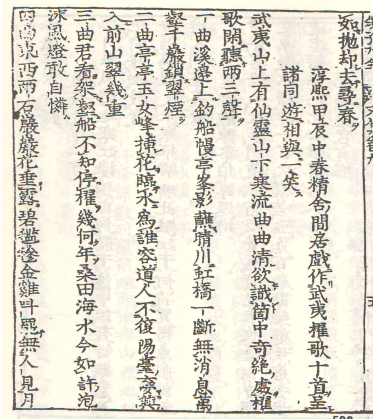
‘지각부’란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는 경부이다. 땅이 처음 열리는 새벽의 창조 행위와 같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도 이를 알고 자족하는 경지라 할 것이다.

‘신명부’란 덕을 널리 퍼는 경부이다. 사람이 처음으로 인시에 일어나 세상에 나타나는 창조행위와 같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었던 80년 동안 신명들의 호소를 듣던 시기이라.

이와 같은 세 가지 경부는 후천/인존 시대를 상징하는 ‘무이구곡’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무이구곡은 주희[1130~1200]가 1184년[순희 11]에 지은 뱃노래 [도가(權歌)]이다. 뱃노래는 달리 도창(權唱)이라고도 한다. 이 뱃노래는 한무제 ‘소고명혜발도가(簫鼓鳴兮發權歌)’에 출전을 두고 있다. 통소와 북을 울리며 뱃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상기하기 바란다.

후천/인존 시대는 바로 이러한 ‘지상 선경’인 것이다.



59) 『전경』, 공사 3장 39절, “道傳於夜天開於子 輒環天下虛靈/ 教奉於晨地關於丑 不信看我足知覺/ 德布於世人起於寅 腹中八十年神明”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⁶⁰⁾

이 말씀은 『전경』[예시 81절/336-337쪽]에서 뽑아온 것이다.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나타나는 천지창조 행위인 것이다. 즉 천지창조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는 이정표이자 안내 지도인 셈이다. 허령부는 도전(道傳)의 안내도이고 지각부는 교봉(敎奉)의 안내도이며 신명부는 덕포(德布)의 안내도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무경』에 나타나는 ‘점’과 ‘반서’의 의미라고 여겨진다.

4) 영가(詠歌)에 대하여

『현무경』에는 ‘주우(宙宇)의 영가(詠歌)’가 등장한다. 장병길[1976]은 『대순종교사상』의 부록으로 『현무경』을 편집한 본을 선보였는데, 그 항목의 하나가 ‘영가’이기도 하다.

영가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조선국… 궁상각치우”라는 음악 용어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상화는 ‘악서의 궁상각치우 발성법과 영가 발성법과의 부합’이라고 보고 있다.

‘영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영가가 나오기는 일부(一夫)[김항(金恒), 1826~1898] 선생의 창도(唱道)에서 시작된 것이다.⁶¹⁾

60) 같은 책, 예시 81절.

61) 박상화, 『한국의 영가』 (서울: 공화출판사, 1976), p.67.

그 뒤의 문인들에게 영가무도(詠歌舞蹈)로 전승되었다. 그 계보는 김일부의 문제(門弟)인 청탄(淸灘), 창부(昌夫) 김영태(金永台)[1863~1944]와 박상화(朴相和)이다. 특히 박상화는 1976년 『한국의 영가』라는 저서를 내기도 하였다.

본 항목의 내용은 박상화의 이 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영가무도’에 있어서 ‘영’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영’을 오래 불러서 익숙해지면 ‘가’는 저절로 불리워지게 된다.⁶²⁾

그런데 ‘영’의 체계는 음(吟)·아(哦)·어(唸)·이(唸)·우(吁)이다. 이는 궁상각치우의 오성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를 오행과 숫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음[궁:토:5·10], 아[상:금:4·9], 어[각:목:3·8], 이[치:화:2·7], 우[우:수:1·6]

음-아-어-이-우 등을 ‘한 차례의 곡조’로 본다. 몇 번이고 연거푸 부르는 단순한 형태이다. 초보자는 애원성을 띠지만, 차차 참회성, 감회성, 신화성 등으로 발전하여 조화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영가를 처음 부르는 사람은 대개가 애원성(哀願聲)으로 처량한 소리가 되기 쉽다. 차츰 더 불러보면 참회성(懺悔聲)이 나오게 되니,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소리를 내어 우는 사람도 있다. 아주 익숙해져서 자유로이 부르게 되면 감회성(感化聲)이 나온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한다. 지극히 화(和)한 소리가 나오게 될 때 그 소리를 신화성(神化聲)이라고 한다.⁶³⁾

영가의 창법은 다음과 같다.

62) 같은 책, p.69.

63) 같은 책, pp.78-79.

노래란 울리기를 드는 것 같이 하고, 내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하고, 곡절 넘기기를 꺾는 것 같이 하고 그치기를 고목과 같이 하라. 그리하여 가는 곡조 속에는 규법(規法)이 있게 하고, 굽은 곡조 속에도 규법이 있게 하며, 연달아 부르기를 구슬 꿰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노래의 말이 되는 것은 그것을 길게 부름이다. 이야기하므로 말이요, 말로는 부족하므로 길게 소리 하고 길게 부름이 부족하므로 차탄하고, 차탄이 부족하므로 춤추고 뛰는 것을 알지 못한다.⁶⁴⁾

이것이 영가의 창법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지 그 법을 알지 못한다. 『악기』가 지어질 때는 영가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특별하게 적어둘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주자[1130~1200]의 주장이다. ‘득악(得樂)의 기상’과 허다한 ‘명물도수(名物度數)⁶⁵⁾의 형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일부[1826~1898]이고 이를 체계화한 것이 창부[1863~1944]라는 것이다. 박상화[1976] 『한국의 영가』의 책자의 결론이다.⁶⁶⁾ 그 악보는 오른쪽과 같다.

영가의 출전은 『악기(樂記)』, 『소학(小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⁷⁾

박상화는 영가를 중국의 고대음악 소악(韶樂)과 연결시키고 있다. 결국 일부가 이를 깨우쳤고 김영태와 박상화가 이

The image shows three staves of musical notation. The first staff is titled '詠' (Song) and includes the subtitle '作相韻 運法至極' (Composition: Rhythm, Method: Ultimate). The second staff is titled '歌' (Song). The third staff is titled '舞·蹈' (Dance). Each staff contains a single line of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64) 같은 책, pp.72-73.

65) 증산 말씀에는 ‘도수(度數)’라는 용어를 자주 나오는데 주자와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주자의 『성리대전』이 등장하는 것에서 이를 눈치 챌 수 있다.

66) 박상화는 영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않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한다. 결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등이 그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앉아 노래하되 주의해야 할 점을 5종류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강엄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책, pp.69-70)

67) 『樂記』, “劉氏曰 人情有所樂而發於詠歌 詠歌之不足 而不知手舞足蹈 則性情之變 盡於此矣. 故人情不能無樂 樂於中者 不能不形於外而為歌舞”; 『小學』, 題辭,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滯”

어서 전승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영가는 증산 시대에 개발된 음악을 도를 통하는 데[도통]에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천 시대에 서 후천/인존 시대로 들어가는 도통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우의 영가’는 ‘도통’의 진입구인 셈이다.

VI. 결론

1909년에 지은 『현무경』은 1970년 전후부터 증산 계통의 종교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경전이다. 특히 대순진리회에 의하여 ‘비밀스런 별채본’인 외톨이 전승본이 아니라 정전(正典)인 『전경』에 흡수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현무경』의 원전을 검토한 결과, ‘병세문’이 없는 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병세문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 보았다.

『현무경』의 내용 분석은 다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1) 증산이 새로이 창안한 ‘경부(經符)’이다. 2) 글씨를 뒤집어 쓴 글씨체[反書體]와 ‘우주(宇宙)’를 ‘주우(宙宇)’로 뒤집어 쓴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정역에 의거한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3) 점(點)과 방점(傍點)은 ‘선경’[후천/인존 시대] 위치를 안내하는 상징 지도이다. 4) 영가(詠歌)는 도통을 이루기 위한 진입구이다. 이상이 본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현무경 경부의 비밀 코드를 다 풀어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연구의 지평을 시작했다는 데 자족하고 후일의 연구를 기다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12판].
『현무경』, 김제: 순천도, 미상[교재용 비매품].
『張師首丈行蹟 및 順天道 沿革』, 김제: 순천도, 미상[교재용 비매품].
『현무경 기초 교재』, 미상[교재용 비매품]
김갑진, 『參考衆說多述舊蹟論(龜山親筆 玄武經原橋 포함)』, 미상, 1974[비매품].
김삼일, 『玄武經原本』, 김제: 청도대향원, 1975[교재용 비매품].
김시목, 『順天道教本』, 1989[3판, 초판 1969, 재판 1978, 비매품]
김 향, 『정역』, 논산: 정역연구소, 2005.
이정림, 『玄武經[권말에 李正立 玄武經誌]』, 김제: 증산교 본부, 1968
[교재용, 비매품].
이진호, 『현무경』, 김형렬 증의손자 소장본[증언].
장군방, 『雲笈七籤』, 『道藏』 권65.
전라북도, 『無極大道教 概況』,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소장[분류 번호 M2-87].
주 희, 『(點校)朱子大全 상·하』,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3[영인본].
구중희, 『능묘와 풍수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08.
_____, 『옥추경 연구』, 서울: 동문선, 2006.
김동화 편, 『自修 東經大全』, 홍천: 천도교 가리산수도원, 1983.
김득황, 『한국종교사』, 서울: 한국사상연구소, 1973[초판 1963].
김영진 편, 『道靈符神研究』, 서울: 민속원, 1992.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대구: 카톨릭신문사, 1988.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4.
대순진리회, 『전경색인집』,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8.
문화공보부, 『한국의 종교』, 서울: 문화공보부, 1989.
박기민, 『한국신흥종교연구』, 고성군: 헤림사, 1985.
박상화, 『한국의 영가』, 서울: 공화출판사 1976.

- 박관수, 『현무경 주해』, 부산: 미륵출판사, 2014[비매품].
- 범해 지음, 『東師列傳: 불교사를 빛낸 200인 전기』, 김륵세 옮김, 서울: 광제원, 1991.
- 법상종 미륵불 총본산, 『法相宗 연다 새 世上門 찾으시라 미륵불 총본산』, 김제: 법상종 미륵불 본산, 2001.
- 송병섭, 『玄武經教本』, 1985[교재용 비매품].
- _____, 『시천주 친필 현무경』, 김제: 현무경 도학연구회, 1992.
- 송병옥, 『현무경과 병』, 창원: 중화출판, 2006.
- 유병덕, 『한국신흥종교』,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1973.
- 윤록 등, 『흙정협기변방서』, 上海: 茂記書莊, 1916.
- 윤이흠, 『한국종교 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 이정호, 『正易研究』, 서울: 국제대학출판부, 1983[재판].
- 이중성, 『天地開闢經 研究』, 서울: 대흥기획, 1996.
- 이효진, 「玄武經圖解原理」, 『註解中經集』, 서울: 선학연구원[대흥기획], 1990.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76
- 장재진, 『玄武經 解義』, 부산: 장신원, 2008.
-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심우성 옮김, 서울: 동문선, 1991
- 천도영부삼우회, 『시천주 현무경』, 서울 : 천도영부삼우회, 1998
-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발행지불명]: 圖書刊行會, 昭和10[1935]

▪Abstract▪

A Study on the Hyun-Mu Sutra(玄武經) of Jeungsan

Jung-Hoe Koo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source criticism (an establishment of authentic text) of the Hyun-Mu Sutra(玄武經) among different editions is studied and an attempt of a new interpretation appropriate to that is attempted. The Hyun-Mu Sutra, a scripture written in 1909, began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the religions of Jeungsanism. In particular, it was remarkable that The Hyun-Mu Sutra was absorbed as canon textbooks Jeonkyung(典經), the Scriptures of Daesoonjinrihoe,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大巡眞理) from a loner and secret pull-out of heritage traditions. However, this scripture though written in 1909 and more than 100 years has passed, remained in a state unestablished authentic text.

The Hyun-Mu Sutra is the scripture consisted of 25 pages by the religions of Jeungsanism[Gang Il-sun 姜一淳(1871~1909)]. 33 page type of Hyun-Mu Sutra has been distributed in the world until now the authentic text of The Hyun-Mu Sutra. However,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diagnostic scripture(病勢文) was found to have been added by descendants. After a review of authentic text of The Hyun-Mu Sutra, it concluded that there is

no diagnostic scripture in primary The Hyun-Mu Sutra.

Though The Hyun-Mu Sutra is a booklet of a small amount, the notation and expression is so unique, it has been in secrecy to read its contents. Interpretation way of The Hyun-Mu Sutra up to now can be summarized in two as follows. 1) approaches by I-ching 2) approaches by ten celestial stems and twelve earthly branches(10干 12支). Approaches by I-ching among this sometimes was supplemented with Buddhist classification methods. Nevertheless, these studies can be evaluated limited because it fails to secure authentic text of The Hyun-Mu Sutra.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Hyun-Mu Sutra was examined itemized by focusing on the following four points. 1) The icon of The Hyun-Mu Sutra(玄武經符) is similar as normal talisman(符籙) but it has other features. 2) ‘Reverse Fonts’(反書體)[the opposite view of the standard fonts(正書體), reflected in the mirror fonts] and size or location used in text is not in uniform. 3) letters in scripture were pointed and points were stamped in the left and upper and lower characters. 4) “Spiritual poem” (詠歌,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a view of elegance as an origin of eco), and the music with the Five-Sounds[宮Gung, 商Sang, 角Gak, 徵Chi, 羽Wu] were related.

As a result, content analysis of The Hyun-Mu Sutra is carried out in the next four points. 1) The icon of The Hyun-Mu Sutra (玄武經符) has been primarily developed by Jeungsan. 2) ‘Reverse Fonts’(反書體)[the opposite view of the standard fonts(正書體), reflected in the mirror fonts] and reverse location such as ‘宙宇’ [the reverse of ‘宇宙’] represents based on a new world based on a forward and reverse I-ching(正易). 3) Dot and neighbor points

is a symbolic map that guides the position of lateral new world(後天) and era(人尊) 4) Spiritual poem is the entrance to achieve the Realization of Do(道通). The above can be consider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Hyun-Mu Sutra(玄武經), Jeonkyung(典經), Daesoon Truth (大巡眞理), diagnostic scripture(病勢文), Jeungsanism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10월 30일